



33만 선배들의 뜨거운 내리사랑!

올해 총 27억1천여만원 장학금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2013년 2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모교 재학생 총 2백92명에게 8억5천9백79만3천5백원을 전달했다.

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모교 재학생 2백3명에게 4억9천4백9만7천원을 수여함으로써 2013년 2학기 장학금은 총 4백95명에게 13억5천3백89만5백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1학기 장학금을 포함해 올해 총 27억1천여 만원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3~5면>



10월 20일 일요일에 만나요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4회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오는 10월 20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교내(미술관·박물관·규장각)를 탐방하거나 관악산을 등반하고 교내 벚들골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13년 10월 20일(일요일) 오전 9시
-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대회장소: 모교 노전강당 앞 벚들골
-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 △참가회비: 없음
-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등
- △경 품: 풍성한 선물 추첨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서울대학교 총장 吳 然 天

관악출추

지난 6월 뉴욕의 한 호텔에서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더니 한국 고등학생 10여 명이 앉아 있다. 다음날도 보였다. 궁금해서 물어봤다. 어디서 온 건지, 아이비리그대학을 보러 왔다고 한다. 꿈을 키우기 위해서란다.

호기심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프린스턴대학을 방문했다. 안내원은 기숙사 창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왜 깨진 유리창을 붙여놓은 것 같고, 녹이 스는 곳이 많은지 아세요? 1700년대에 대학을 만들면서 영국 대학들의 역사에 콤플렉스를 느낀 때문입니다.” 학교를 둘러본 그 고등학생들은 古色蒼然한 강의실과 기숙사를 보며 입학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태웠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보편적 욕구다. 소속원을 근신하고 격려하는 자극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2010년 10월 교수평의회가 1895년을 서울대 開學 元年으로 의결한 것은 졸업생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개학 120년에 맞춰 총동창회에서 지원해 ‘서

울대 120年史’ 편찬과 ‘歷史記念館’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의 역사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됐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개학 원년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한다.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과 법적 권리를 승계하기 이전의 역사로 올라가는 것은 억지란 주장이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역사는 어찌할 것인가. 이미 단과대학별로는 母胎가 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농상공학교 등이다. 법과대학은 법관양성소 1회 졸업생인 李 儁열사

동상을 세웠다.

하버드대학교도 영국 식민지 시대에 학

생 9명과 강사 한 명을 두고 목사를 양성한 역사를 원년으로 삼고 있다. 프린스턴대학교도 목사 응접실에서 목사 지망생 10명에게 강의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어느 대학도 소박한 역사라고, 식민지 시대라고 역사에서 지우지 않는다. 일제시대를 지우려고 해방 이후로 쭉그려뜨릴 이유가 없다. ‘서울대 120年史’ 편찬이 서울대인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金鎮國 중앙일보 논설주간·본보 논설위원>

120年史와 서울대인의 정체성

느리나무광장

“북은 모든 행위가 애국적이야.”

“미국 놈을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만들어보자.”

통합진보당李석기 의원이 지난 5월 핵심 조직원 비밀회합에 참석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담긴李의원의 발언들은 철저한 북한 맹종주의로 비쳐지기에 충분히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경량화를 극찬하는 장면에선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사건 초기에李의원과 통진당은 “100% 날조”, “모략”이라고 잡아땀다. 같은 당 金在妍의원은 아예 5월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자 5월 모임 자체를 인

정하면서 말을 바꿨다. 대화 내용이 잘못 전달됐으며 “나는 전쟁에 반대한다. 뺏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들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金正恩체제를 위한 평화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다. 평화의 송고한 의미를 我田引水격으로 비트는 궤변인 셈이다.

李석기 그룹이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공개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까지 받는 정당이, 歲費를 받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런 의혹을 받는 행위에 연루됐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은 녹취록 내용에 등장하는 자유 파괴 행위까지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李석기 그룹이 국회에 들어와 쟁기려 했던 국가 기밀 관련 정보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당국의 수사 과정을 두고 봐야겠지만李석기 그룹의 정치권 진입 과정은 처음부터 너무 허술했다.

이들은 평소 자신들을 ‘민주세력’으로 포장한다. 정의와 평화, 진보 진영이라고 자임한다. 하지만 녹취록 내용을 보면 언어유희에 가까워 보인다. 이들의 진보가 ‘가짜 진보’, 평화가 ‘가짜 평화’임이 드러난다면 그 실체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참 진보’, ‘참 평화’ 세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짜 진보’, ‘가짜 평화’

鄭 然 旭
채널A 정치부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생각하는 꽃

白 周 殷(농가정75-79)시인

꽃이 時와 때를 가리지 않고
無時로 피어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닌가 굳이 오래 생각할 일은 아니리라.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뒤편 언덕에 심겨진 개나리가
노란 꽃을 눈부시게 피어낸 가을날
어디선가 민들레도 노랗게 피었다 졌는지
내 가슴으로 금방 날아온 흙씨 하나,

都心에서 풀밭을 찾다 지친 것인지
내 초록빛 스웨터를 풀밭이라 생각했는지
내 가슴속에 뿌리라도 내릴 듯 악착같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작은 흙씨 하나,

아주 오래전 한 날의 작은 씨앗이었을 적
나도 어딘가 뿌리 내리느라 풀밭을 찾아
이렇듯 온 천지를 헤매었을 텐데,

동문칼럼

오늘날 한국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인 듯하다. 적잖은 이들이 인문학에서 혁신에 영감을 주는 지혜를 얻으려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행로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얻으려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인들이 선진국을 모방하며 물질적 풍요를 성취하는 데 몰두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최근 현상은 과거의 생활방식에 대해 반성하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인문학도의 견지에서 볼 때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반가운 것이다.

그렇지만 단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풍토는 인문학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공유하는 학문이다.

도록 밑받침해주는 흙처럼 인문학에 필요한 토양이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 토양이 척박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인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성인의 독서량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가 성인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한 해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세가 공식 교육을 통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국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서만 강조하고, 그에 따라 학교는 기껏해야 참고서까지 읽힐 뿐이다. 게다가 대학교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폭넓은 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직도 인문학 교과목은 흔히 교재 1~2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런 풍토는 가정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가정에서는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기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펼쳐 놓고 입시 준비에 열중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처럼 단비가 계속 내린다 해도 한국 인문학이 착실하게 성장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것처럼 척박한 토양을 개량해야 한다. 학교에서



裴 永 洙
(서양사학72-76)
모교 서양사학과 교수
모교 인문대 학장

인문학에 필요한 토양

인문학자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천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공감을 얻을 때야 비로소 활력을 지닐 수 있다. 바꿔 말해 문학작품이나 철학서적, 또는 역사책을 찾아서 읽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독자들이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며 커 나가

는 물론이요 가정에서도 폭넓은 독서를 강조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제도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폭넓은 독서는 시야를 넓혀주고, 또 깊은 사고로 이어진다. 거기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변화에 상응하는 정신적 성장을, 그리고 인간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사고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孔 大 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鍾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琨, 李東官, 李啓聖, 金侁日, 金鍾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邊廷洙, 朴秀埿



본회 林光洙회장은 “창조적인 도전 정신으로 국가·민족에 대한 소명의식을 길러 나가라”고 당부했다.



모교 李俊植연구부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 전념하며 앞날 개척하길”

2학기 장학금 2백92명에 8억5천여만원 전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3년 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본회와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지난 1학기 장학금으로 5백5명에게 13억6천2백32만2천5백원을 전달한 것을 포함해 올해 총 1천명에게 27억1천6백21만3천원을 수여했다.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4~5면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이 받게 될 장학금은 많은 선배님들이 모교와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모아 건립한 장학발당의 임대 수익을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 장학금에는 여러분이 현재의 학비 걱정을 덜고 공부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원대한 포부를 품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참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교육자 존 A. 세드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여 두려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고 전한 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뚝단배를 바다에 띄우려 하는 예비 선장들로 여러분의 작은 배는 때로는 짙은 안개에 길을 잃고, 거센 풍랑에 휩쓸려 흔들리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선 의지로 무게의 중심을 잡고,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펼치는 역풍장법의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항로를 의연하게 항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여러분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배움의 산실에서 면면한 진리 탐구와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도전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소명의식을 길러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俊植연구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을 담아 후배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며 재학생 여러분은 훌륭한 선배님들을 뒀다는 자부심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대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여러분의 성취와 성공이



본회 孫一棼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모교 李在影학생처장 장학금 전달



郭永驤특지장학금 수여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금 수여



鄭八道·李慈倬특지장학금 수여



洪性大특지장학금 수여



曹基浩특지장학금 수여



禹仁性특지장학금 수여



李鍾基특지장학금 수여



李禮植특지장학금 수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금 수여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더 크게 베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베푼 사람이란 의미에서 장학금을 출연해 주신 동문 여러분은 그만큼 더 부자가 됐고, 학생 여러분은 미래에 부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장학생을 대표해 金成中(인문13입)군은 답사를 통해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지난 학기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저를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큰 역군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어린 후배들에게 주시는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모교에 대한 사랑이며 후배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을 다시 후배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가에서 趙玟浩(성악05-09)·蔡周媛(성악09-13)동문이 듀엣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棼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金貞植·尹勤煥·李相赫·金讚淑·郭永驤·洪性大·禹仁性·姜寅求·金鐘燮·李鍾基·鄭忠始·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李禮植·曹基浩·權永吳·金秉順이사를 비롯해 모교 李俊植연구부총장, 南益鉉기획처장, 李在影학생처장이 참석했다.

또 생활대동창회 崔明珍회장, 화학과동창회 金路中회장, ROTC동문회 姜實根회장, 미대동창회 金美惠사무국장, 明泰鉉前송원기업 대표와 明영석 목사,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朴國洋원장, 대림산업 吳圭錫사장, LS그룹 具滋烈회장,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 金英姬여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鄭八道·李慈倬특지장학회 李慈倬여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池鍾立이사, 양천장학회 高文漢상임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香)

2013년 2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權志衍(재료공학4)	3,500,000
		孫元希(의류1)	3,500,000
		承孝眞(화학생물공학2)	3,500,000
		吳旻澤(자유전공1)	3,500,000
		姜孝彬(정치외교3)	3,500,000
亞南	金柱津(법학54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金泰亨(원자핵공학1)	1,718,500
李吉女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	金미리(건설환경공학2)	3,037,000
		金昭潤(조경3)	3,013,000
金譚淑 ·吳東英	吳東英(조선항공54인)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譚淑(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姜正鎭(치의학碩)	4,000,000
		羅炫俊(치의학碩)	4,000,000
		李그리미(치의학碩)	4,000,000
		李有善(치의학碩)	4,000,000
鄭八道 ·李慈倬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姜玟池(경제3)	2,474,000
		具潤省(생명과학2)	3,037,000
		權赫昌(원자핵공학2)	3,037,000
		金幸源(기계항공공학1)	3,037,000
		金泰沆(소비자아동1)	2,474,000
		朴俊英(화학생물공학1)	3,037,000
		李侖娥(디자인1)	3,700,000
		李俊珩(통계1)	3,013,000
		洪知佑(전기정보공학1)	3,037,000
		黃採恩(기계항공공학2)	3,037,000
黃海根 ·李金玉	黃海根(토목공학54-60) 동일기술평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宋洙赫(정치외교2)	2,474,000
李鍾基	李鍾基(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金相佑(컴퓨터공학4)	3,000,000
		金準煥(컴퓨터공학2)	3,000,000
鄭哲圭	鄭哲圭(화학공학48-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高台宇(건축碩)	2,500,000
		金原奭(전기정보공학博)	2,500,000
		河帝旭(전기정보공학碩)	2,500,000
化學科	화학과동창회	尹泰欸(화학4)	3,013,000
		崔재석(화학4)	3,013,000
金秉順 ·李志鎬	金秉順(AMP 4기) 한국구아노 이사 장남 李志鎬(의학77-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梁榮敏(법학碩)	1,000,000
		吳和錫(법학碩)	1,000,000
		尹羲喆(의예2)	1,000,000
		李芝雨(의예2)	1,000,000
孫致武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金道顯(지구환경과학碩博)	2,500,000
		崔智洙(지구환경과학碩)	2,500,000
林光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명예회장	金奎男(수의학4)	2,500,000
		金珉廷(윤리교육3)	2,000,000
		金容濊(작곡3)	2,000,000
		金元彬(심리2)	2,000,000
		金在炫(경영4)	2,000,000
		盧玆周(경제2)	2,000,000
		朴秀範(농경제사회3)	2,000,000
		朴鐘權(산업공학2)	2,500,000
		襄之賢(식품영양3)	2,500,000
		尹惠貞(경제4)	2,000,000
		李宗燾(경제2)	2,000,000
		鄭伍玲(의류3)	2,000,000
		崔東赫(기계항공공학3)	2,500,000
		崔兌煥(건축2)	2,500,000
安聖哲 ·孫潤淑	安聖哲(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金承恩(국악3)	3,966,000
鄭忠始	鄭忠始(화학공학72-76) 태경산업 사장	金旼旻(치의학碩)	2,000,000
郭永駟	郭永駟(토목공학56-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金成中(인문1)	2,474,000
		金容輝(화학생물공학2)	3,037,000
		宋운용(기계항공공학2)	3,037,000
		李泳炫(물리천문1)	3,013,000
		丁敏煥(화학생물공학2)	3,037,000
李海遠	李海遠(행정51-55) 한국우드워드 대표	金度龍(기계항공공학2)	3,037,000
		丁赫俊(기계항공공학4)	3,037,000
		白宗潤(중문4)	2,000,000
明泰鉉	明泰鉉(기계공학46-50) 前송원기업 대표	李保輪(인류3)	2,000,000
		金度龍(기계항공공학2)	3,037,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牧村 5父子	故 金道昶(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金裕旼(자유전공2)	2,713,000
李元珪	李元珪(농생물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과장	劉東弦(역사교육2)	2,000,000
郭東憲	郭東憲(법학61-65) 변호사	康惠仁(신림환경2)	3,021,000
保大院	보건대학원동창회	宋은솔(보건학碩)	2,000,000
數學科	수학과동창회	朴玟慧(수리과학4)	1,000,000
		柳明勳(수리과학1)	1,000,000
		鄭楊可(수리과학4)	1,000,000
禹仁性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李知慧(법학碩)	3,013,000
陽泉	故 金潤澤(경대원68-70) 前양천장학회 이사장	姜보람(가족아동4)	1,000,000
姜信浩	姜信浩(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金善暉(의류4)	3,013,000
		南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李埈鎬	李埈鎬(경제56 - 60) 대림산업 명예회장	郭南綸(식품영양3)	3, 013, 000
		金秀彥(응용생물4)	3, 013, 000
		金修廷(건축2)	3, 037, 000
		朴胤京(국문1)	2, 474, 000
		李健熙(전기정보공학4)	3, 037, 000
		朱二永(의예2)	3, 111, 000
		崔俊榮(기계항공1)	3, 037, 000
金文鉉	金文鉉(상학58 - 64) 대일씨앤아이 회장	李知垣(생명과학1)	2, 000, 000
李秀範	李秀範(행정56 - 60) 백림조세연구원 회장	盧永彬(디자인3)	3, 000, 000
李淳錫	李淳錫(약학61 - 65) 프라이텍인터네셔널 회장	李惠貞(약학2)	4, 539, 000
金鍾瑞	金鍾瑞(경제58 - 63) 세보MEC 회장	金智娟(간호4)	3, 013, 000
張重桓	張重桓(의학69 - 76) 장중환산부인과의원 원장	李智暎(의학3)	3, 500, 000
		崔允榮(의학4)	3, 500, 000
朴浩田 ·金英姬	朴浩田(경영62 - 66) 삼덕 회장 부인 金英姬(작곡62 - 66)여사	具滋潤(기계항공공학4)	3, 037, 000
		金應辰(정치외교4)	2, 474, 000
		金俊學(건설환경공학4)	3, 037, 000
		金太奎(지역시스템공학4)	3, 013, 000
		金惠眞(농산업교육碩)	3, 851, 000
		金熙元(전기정보공학4)	1, 012, 000
		차계영(에너지자원공학4)	3, 037, 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朴浩田 ·金英姬		朴修垠(체육교육4)	3, 013, 000
		朴允宣(농경제사회4)	2, 474, 000
		林亨俊(경영4)	412, 000
		張民哲(식품생명공학4)	3, 013, 000
		鄭雨性(경영4)	2, 474, 000
		崔周妍(독어교육4)	2, 474, 000
姜寅求	姜寅求(수의학59 - 64) 대영EEC 회장	조은엽(수의학1)	3, 000, 000
趙慶一	趙慶一(약학64 - 68) 하나제약 대표	柳志仁(제약3)	3, 000, 000
		韓志受(약학2)	3, 000, 000
金炳贊	金炳贊(의학53 - 60)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李訓才(인문2)	2, 474, 000
金東吉	金東吉(화학교육57 - 61) 경인양행 회장	徐敏錫(화학교육3)	3, 013, 000
劉鐘海	劉鐘海(법학50 - 54) 연세대 명예교수	吳珰旼(법학碩)	3, 000, 000
斗山	차容晟(경제59 - 65)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차容弦(의학62 - 68) 연강재단 이사장 차容晩(경영73 - 78) 두산그룹 회장	閔秀娟(의학碩)	5, 000, 000
		宋瑞胤(경영2)	2, 000, 000
		李旌熙(의학碩)	5, 000, 000
		崔眞卿(경영4)	2, 000, 000
洪禮杓	洪禮杓(치의학65 - 71) 홍예표치과의원 원장	朴志勳(치의학碩)	3, 000, 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金洛榮	金日煥(천문기상64 - 72) 대화 대표	李光燮(화학4)	3, 000, 000
		張敏姬(지구환경과학碩博)	3, 000, 000
藥大	약학대학동창회	高예슬(약학1)	1, 000, 000
		金惠鉉(약학3)	1, 000, 000
		李宋二(약학2)	1, 000, 000
		裴宰堊(약학2)	1, 000, 000
		申裕彬(약학2)	1, 000, 000
朴成勳	朴成勳(기계공학58 - 63) 모간 사장	趙映尚(동양사1)	2, 474, 000
劉常夫	劉常夫(토목공학60 - 64) 포스코 고문	車유진(경제4)	2, 474, 000
李鍾大	李鍾大(천문기상69출) 대흥ENC 대표	李아름(지구환경과학碩博)	3, 851, 000
李世榮	李世榮(약학57 - 61) 삼익제약 회장	文다나(약학1)	2, 100, 000
張明郁	사대 가정교육과 및 생활과학대학 동문 1백10명	李慧潏(의류3)	2, 000, 000
		張基柱(식품영양3)	2, 000, 000
		許爰弘(소비자이동학3)	2, 000, 000
尹世榮	尹世榮(행정56 - 61) SBS 미디어그룹 명예회장	黃敏智(소비자이동학4)	2, 000, 000
		蘇余廷(디자인碩)	4, 746, 000
		元雅榮(기악3)	3, 966, 000
		李智英(법학碩)	6, 733, 000

※ 2013년 8월말 현재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총 1백35개이며, 이번 학기에는 77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함.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姜允熙(노문3)·金奎成(인문계1)·崔禎允(중문2) ▲사회대 權 敏(사회복지4)·金玟娥(사회1)·李玟培(언론정보 석사과정)·李炳虎(경제3)·李河定(심리 석사과정) ▲자연대 金大燁(지구환경과학 석박사통합과정)·金元智(생명과학4)·文起羅(생명과학 석사과정)·李汀彬(화학 박사과정)·曹奎賢(물리전문 석박사통합과정) ▲간호대 宋堉埈(간호2) ▲경영대 李鍾碩(경영3) ▲공대 金원재(산업공학2)·柳陳錫(재료공학2)·李賢敏(컴퓨터공학3)·鄭淵仲(건축공학3)·崔旻晶(재료공학1)·洪起永(화학생물공학 박사과정) ▲농생대 高東佑(농생명공학 석사과정)·金旻志(조경지역시스템공학3)·沈秀珍(동물생명공학3)·柳東憲(산림과학3)·李和娟(농경제사화학2) ▲법대 梁漢姬(법학 박사과정) ▲사대 金相賢(교육 석사과정)·文惠珍(지리교육2)·張原溶(체육교육3)·全垠玲(지리교육3) ▲생활대 李甫漢(소비자아동4) ▲수의대 柳寶璟(수의학2) ▲약대 洪아름(약학1) ▲음대 李惠美(기악 석사과정)·張東仁(작곡3) ▲의대 金信厚(의학3)·朴喜文(의학4)·崔希先(의학 박사과정) ▲치대 류영재(치의학 석사과정) ▲자유전공 金京河(자유전공3) ▲국제대학원 李在喆(국제 석사과정) ▲보대원 金有珍(보건정책관리 박사과정) ▲행대원 崔允禎(행정 석사과정) ▲현대원 催上烈(환경계획 석사과정)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장학금
2백3명에 4억9천4백9만7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梁光姬)= 13명 : 9백30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李賢秀)= 54명 : 1억1천7백50만원 ▲법대동창회(회장 辛永茂)= 18명 : 6천6백78만2천원 ▲사대동창회(회장 卞柱仙)= 10명 : 2천7백13만5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成耆鶴)= 78명 : 1억9천2백97만2천원 ▲생활대(회장 崔明珍)= 4명 : 8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文漢)= 2명 : 9백40만8천원 ▲약대동창회(회장 千文字)= 5명 : 5백만원 ▲의대동창회(회장 차容昰)= 6명 : 3천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朴健培)= 4명 : 1천2백만원 ▲현대원동창회(회장 李完永)= 4명 : 4백만원 ▲ACAD동창회(회장 李弼雨)= 1명 : 3백만원 ▲AIC동창회(회장 李世漢)= 1명 : 3백만원 ▲SGS동창회(회장 曹白一)= 3명 : 6백만원

재학생 18명에 장학금 전달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8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1백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2013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자영(법대원3년)·채무성(법대원2년)·김찬미(법대원1년)학생에게 6백73만3천원씩, 김충녕(법대원3년)·김예지(법대원2년)·강민성(법대원1년)학생 등 12명에게 3백36만

장학생 78명에 1억9천만원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민혁(경영4년)군 등 경영학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40명에게 9천8백96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김병규(경제4년)군 등 경제학부 장학생 38명에게 9천4백1만2천원을 지급했다. 또 모교 경영대 및 경제학부에 각각 1천만원의 학술연구비를 전달했다.

‘후배사랑장학금’ 3천만원 지급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차容昰)는 지난 8월 23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에서 후배사랑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차容昰회장, 金鍾和총무부회장, 모교 의대 姜大熙학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주원(의대1년), 조우현(의대1년), 김보람(의대원2년), 유다예(의대원2년), 김경철(의대원3년), 장수민(의대원3년)학생

장학금 5천여 만원 수여

치대동창회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8월 21일 모교 연



앞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법대장학재단 吳允德이사장

6천5백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법학부 특별장학생으로 뽑힌 이승섭(법학4년)·이상수(법학4년)학생에게 2백47만4천원씩, 김지수(법학4년)학생에게 1백23만7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둘째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成耆鶴회장

이날 수여식에는 成耆鶴회장, 한국은행 李康秀(상학51-55)前부총재, 오라관광 金正銀(경제52-56)前대표, 원일전선판매 鄭啓泳(상학61-66 관악회 이사)회장 등 7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다.



좌로부터 일곱 번째 차容昰회장

에게 각각 5백만원을 전달했다. 후배사랑장학금은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누적인원 40명에게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건캠퍼스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2013년 2학기 교외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崔明鎭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치대동창회 장학금 외 7개 장학금을 통해 25명의 학생에게 총 5천여 만원을 수여했다. (載)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 평생사랑

국민의 행복한 내일 튼튼한 금융, KB가 함께합니다

KB금융그룹 3천만 고객 달성

(2013년 6월 말, 개인고객 기준)



3천만 고객의 사랑, KB평생사랑 이벤트

- [기간] 2013.7.22(월) ~ 9.30(월)
- [대상계열사]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
- [응모방법] 본 이벤트는 개인고객대상이며 참여대상 및 방법 등 이벤트 상세내용은 해당 계열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KB금융그룹 계열사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13.10.15(화)예정, 해당계열사 홈페이지 발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 | | | | |
|------------|-------------|-----------|-------------|-----------|
| * KB 국민은행 | * KB 국민카드 | * KB 투자증권 | * KB 생명 | * KB 자산운용 |
| * KB 부동산신탁 | * KB 인베스트먼트 | * KB 신용정보 | * KB 데이터시스템 | * KB 저축은행 |

 KB 금융그룹

장학연구지원사업 자문회의

해외 강의동영상 자막 공모전 논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정동 소재 한식당 공동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의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자문위원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이 모교 李基俊(화학공학57-61) 前총장을 비롯해 전주대 高 健(응용물리67-74)前총장, 한동대 崔道成(경영70-74)부총장, 모교 張素媛(국문80-84)평생교육원장, 한양대 李 榮(경제83-

87)기획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辛鉉雄(지리64-68)·孔大植(기계공학56-60)부회장, 본보 尹在錫(화학교육71-75)논설위원이 참석했다. 자문위원 중 서강대 姜榮安교수 등 2명은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이날 위원들은 해외대학 강의 동영상의 자막 공모전 운영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서비스가 예정된 9개 강좌 콘텐츠 중 한글 자막이 없는 7개 강좌를 대상으로 하는 자막 공모전



은 교내 학부생을 대상으로 먼저 열리며, 차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개발 완료로 자막 제작 시스템이 갖춰지면 일반인까지 그 참여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도 제고와 서비스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어 위원들은 강좌별로 강좌분량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의

공모전 참여 방식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자를 가려 소정의 상금을 주기로 논의했다. 또 강좌의 성격을 고려해 경제학개론 강좌의 경우 국문과 영문 자막을 동시 제작하고 그 외 강좌는 영문 자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완성된 동영상은 12월경 파일럿 서비스 시행에 앞서 열리는 자문회의에서 시연될 예정이다. 〈秀〉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
한대원동창회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李完永)는 지난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환경연구관에서 2013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李完永회장, SGS동창회 朴贊政(SGS 16기)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동창회 장학금으로 이다예(한대원2년), 이윤혜(한대원2년), 김거중(한대원1년), 김현정(한대원2년)학생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으며 SGS 장학금으로 박용철(한대원1년), 소운상(한대원1년), 양유선(한대원2년)학생에게 각각 2백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1억1천여 만원 수여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賢秀)는 지난 8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203동 101호에서 상록문화재단 韓仁圭(축산52-56)초대 이사장, 鄭潤煥(임학56-62)이사장, 동창회 李賢秀회장, 모교 농생대 李相紀(농화학79-83)교무부회장 등 10여 명의 임원 및 교수진과 장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鄭潤煥이사장의 인사와 韓仁圭초대 이사장, 李相紀교무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동창회 장학재단의 상록문화재단장 학금 및 상록서헌장학금과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의 일성장학금을 통해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54명에게 1억1천7백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여식이 끝난 뒤 행사에 참석한 전원이 제3식당



앞줄 좌로부터 세 번째 李賢秀회장, 韓仁圭초대 이사장, 鄭潤煥이사장

내 음식점 두레미담에서 축하 오찬을 갖고 정담을 나눴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8월 21일 41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서산지역 사적 및 동문 근무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서산 마애삼존불과 개심사를 둘러본 데 이어 黃健植(농학63-67)·金英玉(농가정64-68)동문 부부가 운영하는 산수휴양림 ‘자연의 소리’와 尹錫用(농학74-82)·韓斗浩(농학85-92)동문이 근무하는 현대서산농장을 견학했다.

청관·범은·천재교육 장학금 전달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8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범대 11동 315호 교수회의실에서 卞柱仙회장, 金榮愛(생물교육64-68)상임부회장, 모교 사대 金鍾旭(지리교육71-75)학장 등 6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2학기 청관·범은·천재교육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관장학회에서 양수민(역사교육4년)학생 등 5명에게 1천3백44만8천원, 범은장학재단에서 최수진(독어교육4년)학생 등 5명에게 1천3백68만7천



앞줄 좌로부터 네 번째 金鍾旭학장, 卞柱仙회장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지난 2011년 2월 천재교육 崔容準(수학교육61-65)회장이 모교 학술장학기금으로 쾌척한 20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천재교육장학금 5천2백46만2천원을 박민주(영어교육4년)학생 등 20명에게 지급했다.

장학금 9백40여 만원 지급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9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태영(수의학4년)·남기웅(수의학2년)학생에게 총 9백40만8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행사에 李文漢회장, 모교 수의대 柳判童학장 등 20여 명의 임원과 교수진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보다 학업에 열중할 것을 당부했다.



앞줄 좌로부터 姜寅求·鄭英彩·柳判童·李文漢동문

한편 동창회는 지난 7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李文漢회장, 金建浩수석부회장, 吳孝成·姜華淳·丁成大부회장,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 崔貴澈(수의학77-81)처장 등 1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載〉



이번 호에는 이른바 ‘회춘 10훈’을 소개한다. 이 10가지 항목은 몸과 정신, 심리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며 살기 위한 방법들이니, ‘젊게 사는 구체적 전술 10가지’라고 설명해도 되겠다. 각 분야의 스타일리스트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취합해 그 중 공통되거나 공감도가 높은 항목들을 골라낸 것이라고 한다.

△하루 10분 명상 :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라’는 의미로, 편안한 음악과 함께 하는 하루 10분 정도의 명상은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특효약이다.

△자주 빨리 걷기 : 빨리 걷기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짧고 빠른 걸음걸이로 하루 30분 이상, 1주일에 5회 이상 걸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나이가 지금 상태보다 좀 더 젊은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물 제대로 마시기 : 물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피가 진해지는 것을 막고 장을 청소하는 효과도 있다. ‘3033 법칙’이라고 하여 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한다. 30초 동안에 물 3컵을, 하루 3번씩 계속하면 보약과 다름없다고 한다.

웃음이 병을 고친다

△맘껏 웃어라 :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질병의 치료 효과도 높아진다.

△수수한 웃을 자신 있게 입어라 : 나이 들수록, 제대로 형식을 갖춘 웃자림에 집착하기 쉽다. 스포티하고 심플한 티셔츠나 청바지 같은 패션은 당신을 젊고 개성있게 보이게 한다.

△자외선 노출을 피하라 :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피부가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피부는 촉촉하게 :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늘어나고 각질이 일어나 더욱 늙어 보인다. 필요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세면 후에는 스킨로션이나 밀크로션을 사용한다.

△리모컨을 자녀에게 맡겨라 : TV 리모컨은 집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걸 쥐고 성인 취향의 프로만 즐겨 보다간 기성세대 모드를 벗어날 수 없다. 종종 자녀들에게 리모컨을 맡기고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즐겨라. 트렌드 지수를 높일 수 있다.

△대중문화를 즐겨라 : 젊은이 취향을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기 취향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젊음은 형식이 아니라 당당한 정신에 달렸다.

△디지털을 배워라 : 디카, MP3, 게임기에서 스마트폰, 카톡까지. 젊은이들이 즐기는 각종 첨단 프로그램의 사용은 생각보다 쉽다. 두려워 말고 적극 도전해야 한다.

‘창조화 시대 한국패션...’ 특강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9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퍼스 생활대 최병오홀에서 모교 의류학과 金敏子(가정교육 67-71)교수를 연사로 초빙해 공개 특강을 개최했다.

2011년 한국패션협회가 개최한

‘제1회 한국패션 1백년 어워즈’에서 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金교수는 이날 ‘창조화 시대, 한국패션 DNA로 승부한다’를 주제로 현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특강이 끝난 후 동원생활관 3층 ‘소담마루’에서 오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30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8월 1~31일 9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7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21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30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裴德潤(성악50-53)동문 : 음대 배지 ▲申光淳(수의학52-56)동문 : 제5회 졸업식 및 박사학위 수여식 기념사진 1장(1952년) ▲安喆煥(행정학53-57)동문 : 앨범, 사진, 졸업증서, 액자(사진) ▲金洙鎭(지질과학57-61)동문 : 자연대 부설 광물연구소 요람 및 석조문화재 보존과학연구회 활동 보고서 등 ▲李鍾華(약학55-59)동문 : 부속도서관 열람증, 학생증 2매, 여객운임할인증, 약대 버클, 배지 2개 ▲白尙德(축산학59-66)동문 : 축산학과 수험표 및 서문야학관련 사진류(1959년), 졸업기념 사진(1966년), 버클 등 ▲金容淑(의류학69-73)동문 :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의류학과 수업노트류 등 ▲李信昊(농공학74-78)동문 : 수업 노트 및 보고서 파일 등 ▲黃仁子(대학원78-82)동문 : 학생증 및 대학원 수강신청서, 수험표, 입학시험 문제지, 논자시 문제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회원명부 및 총동창회보류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2) 시청각자료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4) 박물관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나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한국박물관사의 원로 증인

노익장의 鄭良謨 前국립중앙박물관장

‘팔순기념 논총’서 청자삼색 논문 발표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장, 한국미술학회 회장, 한국고고미술연구소장 등을 지낸 笑軒 鄭良謨(사학54-58 한국미술발전연구소장)동문(원사진)이 팔순을 맞아 최근 ‘笑軒 鄭良謨 先生 八旬記念 論叢’을 헌정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金英那)과(사)한국고고미술연구소가 東垣학술논문집 제14집 특집으로 발간한 이번 논총은 도자, 미술, 고고 등 3개 영역에 걸쳐 28명의 필진이 참여한 총 6백여 쪽의 방대한 논문집이다.

한국박물관사의 산증인인 鄭良謨동문은 이번 논문집에서 ‘新發見 靑磁三色(白·黑·暗灰色) 象嵌과 靑磁象嵌 再考察’에 관한 논문을 직접 발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상감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노익장을 자랑했으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로부터 ‘翡色이 천하제일’이라 칭송받아 온 고려청자는 그 상감기법에 있어서 흑과 백 두 가지 색만으로 문양을 만들

었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鄭동문의 연구 발표로 보다 다양한 표현기법이 실존했음을 확인하게 됐다.

즉 그동안 암회색을 띠는 상감은 흑백상감이 窯變(도자기를 구울 때 불꽃의 성질이나 찻물의 상태 때문에 가마 속에서 변화가 생겨, 구워낸 도자가 예기치 않은 색깔과 상태를 나타내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일)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작 단계에서 흑토와 백토를 적정 비율로 배합해 검은 찻빛을 띠도록 의도했음을 이번 논문에서 밝힌 것이다.

鄭동문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도자사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국미의 또 하나의 진가를 발굴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초대 국학대학 학장을 지낸 한학자 爲堂 鄭寅普선생의 4남인 鄭동문은 현재 숙명여대 공예과 겸직교수, 경기대 전통예술품감정대 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金時用·金載姪·孔大植·金昇姬·李舜鍾·孫文子·金芝烈·韓英玉·金新顯동문

정기전 성황... 동문 57명 출품

훈올회

모교 미대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훈올회(회장 金昇姬)는 지난 8월 14~19일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제36회 정기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 沈竹子(회화49-55)·金時用(응용미술56-60)·金載姪(회화56-60)동문 등 원로회원을 포함한 57명의 작가들이 서양화, 동양화, 조소, 공예 등 57점의 작품을 출품해 미술계와 애

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4일 열린 개막식에서 金昇姬(응용미술65-69)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0년에 첫 전람회를 연 훈올회가 이제 36회 전시를 맞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배님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회 孔大植부회장은 축사에서 “50여 년 세월을 뛰어넘어 한 마음이 된 선배들이 이렇듯 훌륭한 전시회를 가진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載)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둘째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李順載회장, 본회 孔大植부회장

2회 정기공연 ‘시련’ 성황리 종연

연극동문회

연극동문회(회장 李順載)는 지난 9월 5~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부설극단 ‘관악극회’의 제2회 정기공연 ‘시련’을 선보였다.

시련은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대표작으로 17세기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마녀사냥을 모티프 삼아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을 그렸다.

이번 작품은 지난 1988년 연극 ‘가을 소나타’를 연출한 李順載회장이 25년 만에 다시 연출을 맡고 沈洋弘(국문64-71)·崔鍾律(화화66-73)동문 등 현역 연기자를 비롯한 많은 동문과 재학생이 참여해 연극계와 일반으로부터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한편 동문회는 공연의 성공을 지원하는 제작발표회를 지난 8월 14일 서울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李順載회장, 본회 孔大植부회장, 沈洋弘·崔鍾律동문, 柳鍾祕관악구청장 등 8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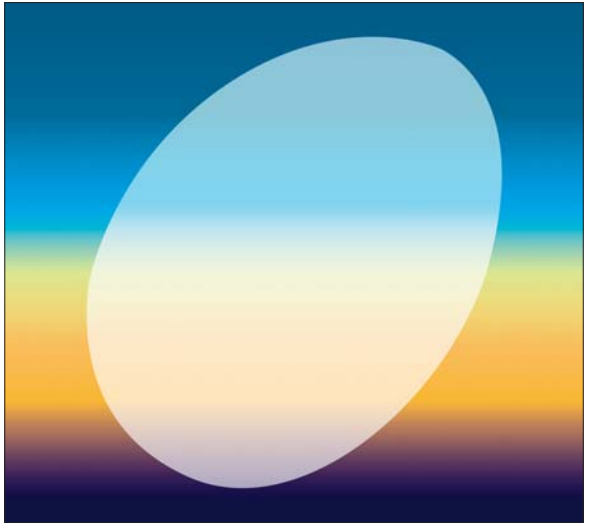
李順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모여 최선을 다하고 역량을 쌓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3~4년 뒤에는 현역 배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을 대신한 축하에서 孔大植부회장은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사회 속에서의 인간 존엄성 파괴를 그려낸 ‘시련’은, 관용을 잃은 채 편협한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安奇順作



life force from the eternity - 1007, Pigment Print, 120×108cm, 2010년

〈작가약력〉

- ▲1983 모교 회화와 졸업
- ▲1983 Alliance Francaise - 서울
- ▲2013 Life Force from Eternity I (SM 갤러리)

- ▲2013 Life Force from Eternity II (AKA 스페이스)
- ▲서울대학교 117전, 서울 산업대학교 100주년기념전, 화인전, 청년작가전 등 그룹전 20여회
- ▲現유투D&C 대표

9·10 월 행사 캘린더

9월 24일(화) 오전 7시 30분

• AIP동창회 정기학술세미나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문의 : 02-878-9467〉

10월 6일(일) 오전 10시

• 수의대동창회 정기총회

관악캠퍼스 수의대 스코필드홀

〈문의 : 02-880-1230〉

9월 24일(화) 오후 5시

• 간호대동창회 동문의 날

연건캠퍼스 간호대 103호 강의실

〈문의 : 02-740-8843〉

10월 7일(월)~13일(일)

• 의대동창회 제11회 함춘미술전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천홀

〈문의 : 02-762-9051〉

9월 28일(토)~29일(일)

• 사대동창회 추계문화탐방

경북 안동시 일원

〈문의 : 02-720-8116〉

10월 12일(토) 오후 2시

• 대학원동창회 흙커밍데이

대학로 예술가의 집

〈문의 : 02-880-7565〉

제69회 테니스대회

이순테니스회

이순테니스회(회장 申東澈)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 코트에서 18명의 동문이 2개조로 나눠 제69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 申京鐵(행정64졸)·韓仁敎(의학66-72)동문, 준우승 : 金潤澤(법학50-58)·高相睦(상학53-57)동문, 3위 : 成旭基(경제53-57)·金燦熙(상학62-66)동문 △B조 우승 : 崔鵬鍾(체육교육56졸)·曹鍾守(잠사66-70)동문, 준우승 : 張幸勳(법학54-58)·洪明熹(법학55-59)동문, 3위 : 李昌健(전기공학49-54)·曹圭勇(경제53-57)동문 〈연락처 : 申東澈회장 02-576-7750〉



10월 12일 동문연주회

음대동창회

음악대학동창회(회장 申秀貞)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제9회 동문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에서 모교 음대 金泳律(기악76-80)학장이 지휘하는 관악 합주, 전주시립교향악단 姜頤熙(작곡82-86)지휘자가 지휘를 맡는 현악 합주, 관소리 및

가야금 앙상블 등 국악과 합창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申秀貞회장은 “연주회를 위해 모교 출신 유명 음악가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쳤다”며 “모교 개교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발전하는 모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문의 : 음대동창회 02-876-1440〉 〈載〉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우로부터 여덟 번째 가천대 李吉女총장

세계여의사회 국제학술대회 참가

함춘여자의사회

의과대학 함춘여자의사회(회장 李信愛)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9회 세계여의사회 국제학술대회(MWIA)에 참가했다.

MWIA는 세계 보건의료계의 여성 리더십과 역할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1989년 처음 개최된 이래 2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대회 기간 중인 8월 2일에는 모교 의대 내과학교실 金那英(의학 80-86)교수가 'Recent Update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라는 주제로 GERD(위식도역류질환)의 최신지견에 대해 강의했으며 모교 의대 재학생 14명이 학술발표장 도우미로 활동하는 등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를 기념해 지난 8월 1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환영의 밤' 행사에서 가천대 李吉女(의학51-57 본회 부회장) 총장이 1억원의 기부금과 행사 진행비 전액을 출연해 동문들의 귀감을 샀다.

한편 함춘여자의사회는 최근 모교 연건캠퍼스 의생명연구원 11층 가든부에서 尹惠淑(의학53-59)·

金明子(의학59-65)·朴誠淑(의학 65-71)동문 등 원로 임원을 비롯한 49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 모교 의대 金聖煥(의학85-91)연구부학과과 朴仁淑(의학67-73)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올해 모교를 졸업한 신입회원 52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들 전원에게 USB(32GB)를 선물했다. 또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에게 4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모교 정신과학교실 曹洙哲(의학67-73)교수가 '베토벤의 음악 사상 그리고 보편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펼쳐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 2012년도 회무 보고를 통해 홈페이지 개설, 회원수집 및 뉴스레터 발간 등 동창회 사업 결과를 소개했다. 또 오는 11월 '여의사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제2차 학술대회 개최를 결의했으며 장애인 단체 후원 등 사회봉사 활동 증대를 다짐했다.

동문회원증 전달 임학동문회

임학동문회(회장 徐承鎭)는 지난 8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산림과학부 세미나실에서 徐承鎭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회원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2학기 학위수여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사 3명, 석사 5명, 학사 8명 등 16명의 졸업생이 학위와 함께 임학동문회원증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수여받았다.

한편 동문회는 최근 산림과학부에서 4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이견산업 李春滿(임학73-80)고문이 '목재산업의 이해와 새로운 이슈들'을 주제로 30년 이상 목재 및 조림사업에 종사하며 체득한 경험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회에 모인 재학생들은 적극적인 질문으로 취업 등 진로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조찬세미나 성황 ASP동창회

세계 경제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成映穆)는 최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成映穆(ASP 12기 조선호텔 대표)회장을 비롯해 金聖夏(경제 81-86·ASP 23기)총무, 모교 경제연구소 錢英燮(경제76-80)소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니버설발레단 文薰淑(ALP 12기)단장이 '발레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일본 북해도 맛기행 AMPFRI동창회

식품의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熙熙)는 최근 일본 북해도로 해외연수 겸 맛기행을 다녀왔다.

朴熙熙회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이 북해도 현지의 맛집 등을 둘러보며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명 과자 회사를 방문했다. <載>

만평

李元馥



라면과 참기름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다. 얼마 후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다. 왜 잡혀갔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잡혀갔다.
왜 끌려갔을까, 라면이 다 물어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다. 왜?
말려들어서...
재수 없게 짜배기도 걸려들었다.
왜?
일이 꼬여서...
아무 상관없는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다. 왜?
초 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조금 때문이란단. 왜?
소금이 짠 거랍니다.

어떤 위문

유명한 어느 여배우가 육군병원에 위문을 갔다.

여배우: 어떻게 싸우셨나요?

병사1: 이 손으로 적병의 굶소를 가격했지요.

여배우는 병사의 손에 키스를 하고 다음 병사에게 똑같이 물었다.

여배우: 어떻게 싸우셨나요?

병사2: 저는 이 단단한 이마로 적을 들이받았습니다.

여배우는 이번엔 병사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또 다음 병사에게 물었다.

여배우: 어떻게 싸우셨나요?

병사3: 저는 입으로 물어뜯었습니다.

<독자제보 환영>

매 듀오
www.du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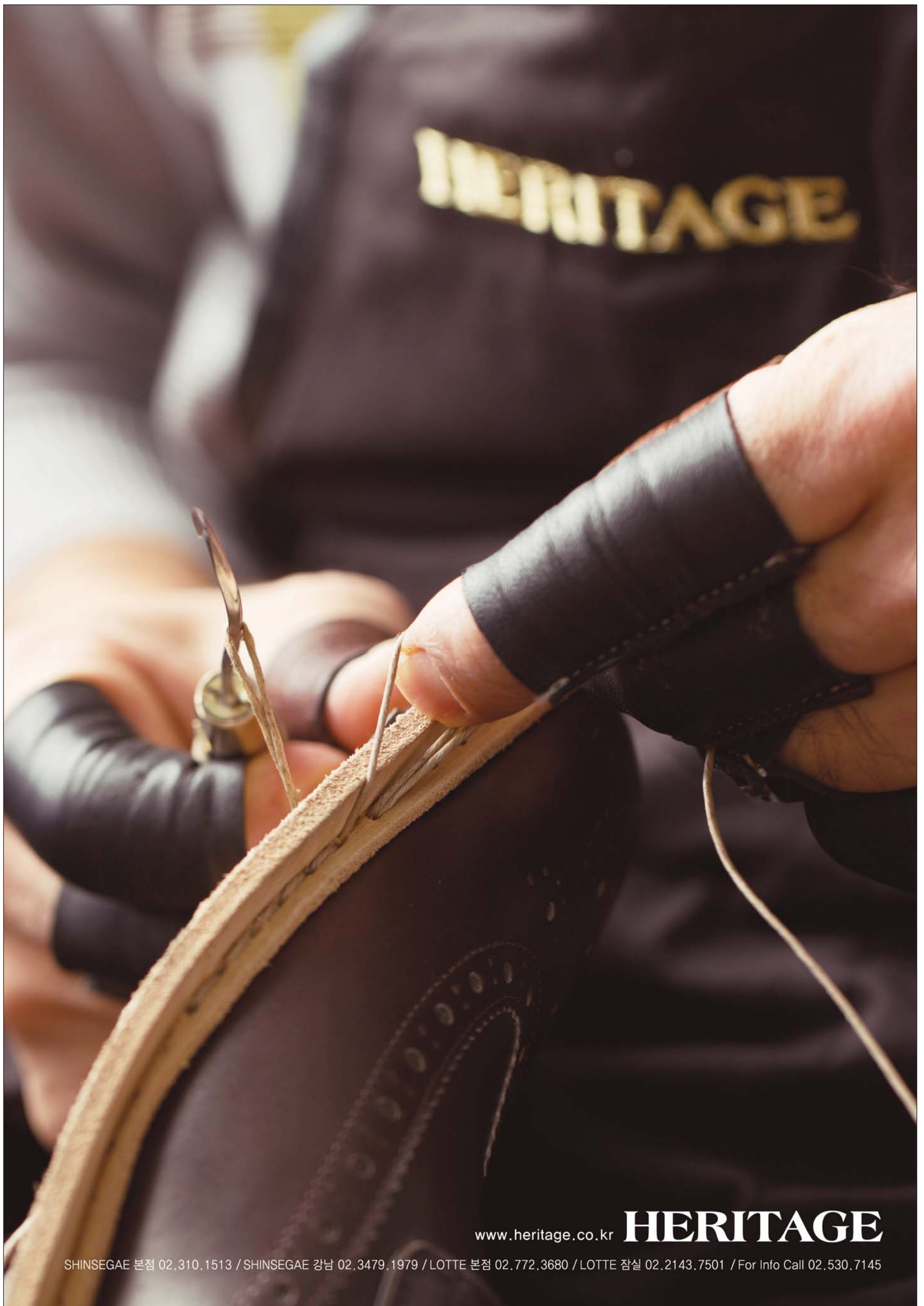
1년안에 당신도
결혼해 듀오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성혼회원수 27,228명 (2013년 8월 19일 기준)

*성혼회원수는 듀오에 가입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 (1995.2.14~2013.8.19)
*위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제(2012.3.29)에 들어있는 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연령'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듀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수원/천안/울산/창원/전주/LA/뉴욕/뉴질랜드

전국공통 1577-8333 재혼/노블레스



www.heritage.co.kr **HERITAGE**

SHINSEGAE 본점 02.310.1513 / SHINSEGAE 강남 02.3479.1979 / LOTTE 본점 02.772.3680 / LOTTE 잠실 02.2143.7501 / For Info Call 02.530.7145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KIDA
 Korean Insulin Dependent Diabetes Association
 보건복지부 산하복지기관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소아당뇨 아이들의 치료비 및 학업장려 장학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승미(가명, 만 10세)는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면서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다. 그런 상태를 이상하게 여겨 찾은 병원에서 승미는 당뇨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은 어른들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어린 승미가 당뇨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만 10살이 되는 승미는 하루 4번 정도 인슐린주사를 스스로 맞고 수시로 혈당체크를 해야 합니다. 보통 공복 80~110mg/dl, 식사 직후 200mg/dl 이하가 정상인 혈당이 식사 후 400mg/dl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조절이 안 되어, 수시로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가기 때문에 자주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승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학교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인슐린을 주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서 맞곤 합니다. 그리고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실에 자주 가 있어서 학교 수업을 빠질 때가 많습니다. 승미가 당뇨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몇몇 선생님이 강도가 심한 체육활동을 등을 면제해줄 때, 이걸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너만 특별대우냐, 너는 왜 안하냐?”는 말을 들을 때면 승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업시간에 보건실에 가 있거나 일주일씩 입원했다 다시 돌아가면, 아이들 보기가 서먹하고 수업내용을 잘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렇다 보니 즐거웠던 학교생활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속상하고 우울해요.” 당뇨를 앓다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습다. 승미네 집은 어머니 혼자 버서서 당뇨관리에 필요한 물건과 2주에 한 번씩 가는 병원비를 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식비도 예전에 비해 많이 들어갑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건강식을 먹어야 하기에 한 가지만 놓고 먹는 게 아니라 신선한 음식을 이것저것 해놓고 조금씩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저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아 미안해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공장에 다니며 저희를 키우는데, 제가 이렇게 몸까지 아프니 엄마한테 부담만 더 주는 것 같아 미안해요.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소아당뇨라고 아시는지요?

당뇨병 800만 시대 소아당뇨는 2만 명이나 되지만, 소아당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뇨다 하면 어른들이 주로 걸리는 비만으로 오는 성인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아당뇨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체장세포가 파괴되는 1형 당뇨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크푸드와 과도한 입식, 그리고 서구화된 식단과 생활패턴으로 인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2형 소아당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 및 수혜혜택이 부족하여 3000여 가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아이들에게는 인슐린이란 최소한의 치료와 그에 따른 혈당시혈지조차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인슐린을 맞고 혈당검사를 받는데 한 달에 약 20 여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3000여 가구가 넘는 아이들은 매일 하는 혈당검사조차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최소한의 치료를 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0년부터 활동하다가 2005년 창립된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지난 13년간 소아당뇨 가족들의 성원으로 발전해 왔습다. 2009년 5월 7일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등록이 되었으며, 2010년 소아당뇨의 날 선포식을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하였고, 이후 매년 5월마다 소아당뇨의 날을 개최 하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아당뇨 가족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협회를 창립한 김광훈회장은 여러분과 같은 서울대 동문이며 어린시절부터 소아당뇨로 고생한 환자이고, 현재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오월애를 테마로 열린 '제4회 소아당뇨의 날'은 SBS ESPN 신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홍보대사인 걸그룹 4MINUTE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한 홍보대사 외에도 그동안 행사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님을 비롯한 홍보위원장인 개그맨 노정렬, 영화배우 오미희, 가수 박학기, 이자연, 개그맨 김제동, 마라토너 이봉주, 야구선수 심성보, TBS 최지은 아나운서 등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소아당뇨 아이들과 가족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임직원은 물론 자원봉사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아당뇨의 날, 소아당뇨병 알리기 거리캠페인, 소외지역 건강검진, 세계당뇨의 날 기념학술제, 소아당뇨 가족에게 치료 물품 지원,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학습 및 생활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소아청소년 당뇨병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정적으로 제시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시험지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욱 보장성이 확대 되어 시험지 외에도 바늘을 비롯한 치료제를 지원하고 2형 청소년 소아당뇨 아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지 만으로는 당뇨병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협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들이 소아당뇨 가족들에게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은 아이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등의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아당뇨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업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세계당뇨의 날에는 선한목자교회와 협회 임원들의 후원으로 10명의 소아당뇨 가족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아당뇨인협회는 순수하게 소아당뇨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 임직원이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사비를 털어 협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후원자들의 소액후원금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30명의 소아당뇨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들의 동참이 아이들의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및 예금주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81-20-022296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후원인분들께는 소득공제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www.iddm.kr

02-576-0366

제3대 임원 및 후원회원 모집중입니다.
 적극 추천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동문

극지연구소 金禮東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KOPRI)는 지난 7월 31일 제4대 소장으로 金禮東(지질과학73-77)동문을 선임했다. 2004년 설립된 극지연구소는 극지역의 대기, 빙하, 운석, 생물자원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지구 환경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매년 남극에 월동연구대와 대규모 하계연구단을 파견하는 등 국내 유일의 극지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대 연구소장을 지내 연구소의 발전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金소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연구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며 “극지연구소 제2의 설립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후변화 열쇠 찾는 극지연구

극지연구는 그 생소함으로 인해 극지와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체감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일상과 매우 밀접한 분야이다.

“흔히 말하는 겨울철 한파나 여름철 더위에 북극의 해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극도 지구 전체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온대 지방의 기온이 지난 1백년 동안 0.7도 상승했는데, 극지에서는 최소한 2~3도로 훨씬 빠르



내년 張保臯기지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코리안 루트 개척...연구 거점 확보”

게 변합니다. 기후변화 효과가 증폭돼 나타나는 극지는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기후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이죠.”

유용한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는 물론 극동지역과 유럽 간 해상운송의 관道を 바꿀 북극 항로의 개발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극지연구 소재이다. 극지 생물 연구를 응용한 예로 오존층 파괴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 남극의 식물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을 추출해서 개발한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상용화돼 있다.

현재 남극에서는 20개 나라가 40여 개의 상주기지를 운영하며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金소장은 극지연구가 지

니는 인류 공영의 가치 또한 강조했다.

“극지연구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배도 필요하고, 기지도 있어야 하니 그럴 돈이 없는 나라들은 연구를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대신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의 공통된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극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극지연구의 큰 매력입니다.”

金소장은 1983년 미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의 권유 덕에 한국인 최초로 남극에 방문했다. 당시에 이미 1천여 명의 미국 연구자들이 남극 대륙에 파견돼 있었던 반면 한국

은 아문센이 개썰매를 끌고 갔던 곳이란 인식 외에는 남극에 거의 무지한 상태였다.

남극의 첫인상에 대해 “사방이 하얀색과 파란색의 두 가지 색뿐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회상한 金소장은 지금까지 30차례 이상 남극을 방문해 왔다.

“보통 남극에 처음 간 사람들은 다시 남극에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가게 돼요. 극지는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되는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극과 극을 모두 다녀온 그에게 두 극지의 매력을 묻자 “얼음 대륙인 남극은 어마어마한 거인 같아서 상상을 불허하는 경의

스러움이 있는 반면, 북극은 조금은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느낌이고 여름에는 한결 따뜻한 기후가 차이점”이라고 답했다.

남극에 발 디딘 한국인 1호

극지연구의 애환으로 金소장은 극지에서 겪는 고립감을 꼽았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Midwinter)에 기지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는 전통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기 위한 일환이다. 남극의 여름에 해당되는 12월부터 약 3개월간이 최적의 연구 시기인 탓에 부인 申純浩(영양교육81졸)동문을 비롯한 가족은 金소장이 없는 연말연시가 익숙할 정도이다.

1988년 남극 세종기지 설립으로 물꼬를 트고 북극에도 다산기지를 세운 극지연구의 최종 목표는 남극 대륙으로 들어가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서 해안으로부터 약 1천 km 들어간 지점쯤에 연구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9년 제작한 첫 극적 섹션 아라온호와 내년 3월 준공을 앞둔 대륙 해안의 張保臯기지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그려둔 로드맵의 일부이다.

“옷도 다 입고, 신발도 갖춰 신고 제대로 뽀 준비가 돼 있습니다. 張保臯기지는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모교 지질과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金소장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지구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극지연구소 초대 소장과 남극대륙기지건설 단장, 아시아 극지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올해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秀)

삼일PwC 朱連堦전무

지난 6월 회계법인 삼일PwC는 朱連堦(의학78-84)동문을 헬스케어·바이오·제약산업 총괄 전무로 선임했다. 의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회계법인의 파트너(임원)가 된 朱전무는 “요즘 국제적으로 한국의 의료산업과 바이오·제약산업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시장적 관점에서 아주 많아졌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조인트벤처라든지 기업인수과정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욕구도 있어 서로 잘 어울리는 기업들을 매칭시켜주는 업무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삼일PwC는 CPA(공인회계사) 2천8백여 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 3천8백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으로 회사의 회계감사, 국내외 세금 이슈 관리, 기업의 자본유치, 컨설팅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안에서 朱전무는 의료산업의 세계화 추세 속에 기업 간 인수합병, 의료기관 컨설팅 및 국가연구기관들과 함께 정책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연구기관의 정책 컨설팅

朱전무는 모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1995년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의사 발탁을 시작으로 주 활동무대를 진료에서 경영분야로 옮겨갔다.



“당시 마음 속에 욕구가 있었고,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의사들이 산업적인 영역에서 활발하게 선진 의료를 펼쳐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컨설팅, 병원경영, 의료산업에 관한 투자회사에도 많은 의사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삼성서울병원이 생기면서 젊은 의사 중에서 병원경영을 전담할 의사를 뽑는다는 메시지를 듣고 지원을 했고 1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됐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경영분야는 직업적으로 거리감이 있다. 朱전무 또한 처음에는 의사를 잘 아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를 관리할 것이다’,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많이 받았다. “저는 항상 환자에게 전달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의료산업 발전을 통한 의사들의 진료 수준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보내던 분들도 지금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몇 가지 들었다.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우리 몸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의료산업적으로 객관적인 이론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의료진과 산업계에 있는 사람

의사 출신 최초 회계법인 임원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 운영 목표”

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모교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내

朱전무는 본인의 뒤를 따르려는 많은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주변에 찾아보면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접 선배들을 찾아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많이 질문하고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모교에서도 혹시 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좋은 얘기들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의 동문

朱전무는 이미 세계적으로 건뽀 손색없을 만큼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우리 의료기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실력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대체로 그쪽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는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 프로세스는 물론, 의료기기 디자인과 마케팅 방식, 투자금액의 배분까지 모두 현지화해야 함을 의료기술의 세계화 조건으로 꼽았다.

朱전무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시작해서 경영의사, 삼성그룹의 임원, 금융상품 개발, 현재 회계법인의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다.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나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본입니다. 미국에는 관련 전문 펀드들이 참 많은데 저도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를 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朱전무는 의대 동문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남겼다.

“공익기금들을 형성해서 의료 발전, 모교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많은 동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邊)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KORAELECTRIC POWER CORPORATION



에너지관리공단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100W** 줄이기 꼭 함께 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올 여름 전력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 닫고 냉방으로 더 시원하게!

절전하는 시원한 가게에서 쇼핑해요



여름철 건강온도 26℃!

시원한 옷차림에 건강온도 지켜주세요



오후 2시~5시에는 절전 실천!

하루 중 전기가 가장 부족한 시간은
오후 2시~5시입니다



안 쓰는 플러그 뽑기는 기본!

플러그 뽑기(대기전력 차단)만으로 6%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WEC)
2013. 10. 13 ~ 10. 17



22nd World Energy Congress
DAEGU 2013



100W 줄이기



‘한 사람 100W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

① TV 1대 끄기 ② LED등 2개 갖기 ③ 에어컨 30분 쉬기

※문 열고 냉방, 26℃ 온도제한 등의 점검시간은
평일 오후 2시~5시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국민이 신뢰하도록 원자력 안전에 최선”

동문을 찾아서

원자력안전위원회 **李 銀 哲** 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가운데 발생한 원전 부품 관련 비리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대책 마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된 **李銀哲**(원자력공학65-69)동문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100%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전문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답 : 尹在錫(CBS객원해설위원)논설위원

—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지 5개월 가량 되셨죠. 원자력공학 1세대로서 정부 요직은 처음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적응은 많이 되셨나요. 최근 원자력과 관련해 국내외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0여 년 동안 교수직에 몸담아 오면서 해왔던 일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 교수 시절에는 자문 역할을 주로 맡다 보니 가감없이 저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는데 반해 이 자리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로 어려움이 큼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등 굵직한 원전비리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에 앞서 이번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은 기본 인프라를 갖춘 뒤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성장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반해 원자력 관련 산업은 필요에 의해 굉장히 성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큰 틀의 산업 위주로 성장을 시킴으로써 부품산업이 동반 성장하지 못해 약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부품을 교체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때문에 일반상품으로 대용할 수 있는 제도를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일반상품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려면 그에 맞는 기능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설투자대비 이익이 크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제품을 다시 납품하기 위해서는 성적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과거 받았던 자료를 위조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 국민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책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일반상품으로 대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2003년입니다. 따라서 2003년 이후의 기기에 대해 100% 전수조사를 실시해



• 李위원장은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1969년 모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모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2013년 2월 정년 퇴임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핵안전자문그룹 자문위원,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998년 한국원자력학술상을 수상했다.

“규제 전문 인력 선진국 수준 확충 필요” 관련정보 사전 공개로 불만 최소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 비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기관이 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난도 많은데요.

“현재 저희 규제 인력이 총 93명입니다. 전문기관 인력을 포함해도 원전 1호기당 18명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인 미국(37명)과 프랑스(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발전소에 파견된 인력 또한 평균 1.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미국(3.7명)과 프랑스(3.7명) 등의 선진국 수준까지는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결국 현장 확인과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전문 인력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

감시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해 임명한 기구인데 지역민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감시역할을 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부족한 부분은 서로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원회가 2011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지만 朴槿惠정부 들어서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 기구(차관급)로 격하됐죠. 이런 부분도 원전비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차관급 기구로 변경된 것은 맞지만 독립적으로 원자력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수는 물론 합의제 기구로서의 심의·의결 기능도 법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는 7명의 비상임위원을 모두 정부가 추천했으나 이번 개편 과정에서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강됐다고 볼 수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 분야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최초로 가동한 이후 현재 23기에 이르는 가동원전을 운영하기까지 상당한 규제 경험과 관련 기술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죠. 국제 원자력기구(IAEA) 등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 인력과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IAEA에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서도 종합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2회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 분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원자력 안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입니다. 기술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보 공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지요.

“사전에 전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후 공개는 모두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것과 같아 공개의 의미가 없지요. 결정하기 전 공개를 한 후 얼마간의 시간을 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우 관련 전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지역 전문가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원전 안전과 관련 3단계 철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3단계 철학이라는 것이 저만의 철학은 아니고 원자력 안전 관련 보편적인 것입니다. 1단계는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전이 원전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건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3단계는 1·2단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사전이 격납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주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상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진=邊廷朱기자 정리=林香默기자)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오늘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소박하지만 근원적인 다섯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인간 존중, 그리고 공동체 정신, 그리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어느 직장에 서건 여러분의 구심적 역할, 마지막으로 포용력 있는 넓은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간 존중의 정신을 여러분의 사고와 행동에서 항상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존중의 정신을 우선한다면, 자연스럽게 더불어 함께 전진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함을 실천하는 자세를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여러분의 앞날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정진하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인내심과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고 소수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폭넓은 세계관을 살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우고, 어느 곳이든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널리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이제 졸업생 여러분은 지난 수년 동안 학업에 전념했던 모교를 떠나 사회라는大海에서 자아실현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격동의 국제 정세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 그리고 세대·계층 간 갈등 등이 폭풍우처럼 뒤섞인 이 바다에서 여러분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가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에 있어서 이성(이성)은 나침반이며 열정은 질풍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대가 선택한 최고의 엘리트인 여러분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성공이라는 신대륙을 찾아내는 최고의 선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울대인으로서 부여받은 사회적 책무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의 입신양명은 나라와 민족 앞에 짊어진 무한책임(무한책임)을 완수할 때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서울대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안에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 숨 쉴 때, 동창회를 위시한 33만 동문사회는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엔벤대 박永浩총장 축사 〈요지〉

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 줄곧 엔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중한 양국의 공식 수교가 이뤄지기 2개월 전에 이미 작고하신 서울대 金鍾云 前총장께서 엔벤대를 방문하시고 양교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맺어 놓으셨습니다.

서울대는 저로 하여금 중국과 한반도 간의 지속적인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일층 심사숙고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어느 사회에서든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게 됩니다. 서울대 졸업생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돼 갈 때 우리들의 모교인 서울대가 세계 일류의 명문대가 됩니다.

서울대를 무사히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되는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그 이치를 실천해 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제67회 후기 학위수여식…2천4백39명 배출

뮓총장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孔大植부회장, 모교 吳然天총장, 보직 교수,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洪起玄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5백10명, 석사 9백98명, 학사 9백31명 등 총 2천4백3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8월 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102	11,868
사회과학대학	136	15,972
자연과학대학	75	11,755
간 호 대 학	2	3,642
경 영 대 학	45	7,563
공 과 대 학	208	45,699
농업생명대학	91	21,860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37	5,628
법 과 대 학	48	17,062
사 범 대 학	99	26,925
상 과 대 학	—	6,723
생활과학대학	39	4,475
수 의 과 대 학	1	2,412
약 학 대 학	—	6,368
음 악 대 학	47	8,005
의 과 대 학	—	11,725
치 과 대 학	—	6,049
자유전공학부	1	26
대 학 원	1,219	98,188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38	887
보 건 대 학 원	46	3,651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125	4,928
환 경 대 학 원	38	2,863
치 의 학 대 학 원	—	436
의 학 대 학 원	—	61
융합과학대학원	22	121
경영전문대학원	15	681
법학전문대학원	5	279
소 계	2,439	337,709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1,606	25,718
총 계	4,045	376,765

吳然天총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이 축적한 학문적 성취와 뿌리 깊은 인본적 기반에 패기와 도전정신이 더해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21세기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은 지난 수년 동안 학업에 전념했던 모교를 떠나 사회라는大海에서 자아실현의 뜻을 펼치게 됐다”며 “이 시대가 선택한 최고의 엘리트인 여러분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성공이라는 신대륙을 찾아내는 최고의 선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엔벤대 朴永浩(행대원96-99)총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돼 “언제 어디서나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되는 것이 성장의 요람인 모교에 대한 최상의 보답”이라고 축사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러시아 출신 고려인 3세 홍야나(국문08입)양이 외국인 유학생 최초로 졸업

생을 대표해 연설했다. 홍 양은 “많이 그리웠던 한국에 왔기에 마음먹고 공부해 마침내 서울대에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모교 음악대학 남성중창단이 축가로 ‘즐거워하자, 우리의 젊은 날을’과 영화 ‘라이언 킹’의 주제곡을 불러 이날의 기쁨을 뽐냈다.

또 이날 식전 행사에서 기악과 崔景煥(작곡72-80)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이 축하 연주를 펼쳐 청중들을 즐겁게 했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이한석-최슬아 ▲사회대 : 한정식-이재원 ▲자연대 : 김지수-신현진 ▲경영대 : 전민호-윤석배 ▲공대 : 이상선-안남영 ▲농생대 : 이제호-박수상 ▲미대 : 김주연-이주연 ▲법대 : 정우채-정호영 ▲사대 : 이원·이우진-백승준 ▲생활대 : 명화연-서민영 ▲음대 : 정유나 권전은 〈秀〉

金仁竣교수 등 27명 퇴임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27명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仁竣(경제학)교수, 張達重(정치외교학)교수, 金赫(수리과학)교수, 金慶烈(지구환경과학)교수, 吳林象(지구환경과학)교수, 全鍾雨(통계학)교수, 徐正憲(화학)교수, 李東鎬(기

계항공공학)교수, 崔景鎬(전기정보공학)교수, 韓民九(전기정보공학)교수, 韓相榮(컴퓨터공학)교수, 李炯周(농생명공학)교수, 安京煥(법학)교수, 胡文赫(법학)교수, 金基奭(교육학)교수, 李光淑(독어교육)교수, 李聖默(물리교육)교수, 金得俊(약학)교수, 沈昌求(제약학)교수, 崔應七(제약학)교수, 姜炳雲(성악)교수, 盧幸圭(의학)교수, 文信容(의학)교수, 朴在甲(의학)교수, 安允玉(의학)교수, 趙秀憲(의학)교수, 李承旭(보건학)교수

지리학과 朴淑姬동문

미래비전 장학기금 1억원 기부

지난 7월 15일 朴淑姬(지리60-64)동문(사진右)이 모교에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吳然天 총장, 朴淑姬동문과 남편 宋漢淸(법학56-60)동문을 비롯해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金容倉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朴동문의 이름을 딴 ‘박숙희 미

래비전 장학기금’은 인재 양성의 취지에 따라 향후 지리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金옥여고 교장, 서운중 교장, 서울시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등을 역임한 朴동문은 청소년 교육을 선도하는 데 공헌해 왔다. 朴동문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만큼 장학사업에 항상 관심이 있



었다”며 “앞으로도 여력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1위

모교 병원

모교 병원(원장 吳秉熙)은 지난 8월 26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

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 인지도, 신뢰도, 충성도 등을 조사 평가해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상반기에 제조업을, 하반기에 서비스업을 조사한다. 올해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는 지난 5~7월에

실시됐으며 모교 병원은 70점으로 종합병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吳秉熙원장은 “질병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융합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 구축, 연구중심병원 지향, 의학적 원칙과 근거를 기준으로 한 진료표준 제시,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더욱 인정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전을 경영하라’ 청소년 캠프

경영대학

경영대학(학장 金炳道)은 지난 8월 2~5일 경영대 홍보대사(B.GINs) 학생들 주최로 ‘청소년 경영캠프’를 개최했다. ‘도전을 경영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선발한 46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

영과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한 경영학 소개와 창업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경영학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金炳道학장은 “학생들 스스로 창조적 경영리더를 꿈꾸고, 미래 후배들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학장에 李建雨교수 임명



지난 9월 1일 모교 공과대학 학장에 기계항공공학부 李建雨(기계공학74-78)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李학장은 1978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MIT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모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모교 공과대학 학생부학장·교무부학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 CAD/CAM학회 고문, 한국공학한림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대한기계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과정은 기후변화의 국제적 거버넌스, 기후변화 저감,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이론 강의와 순천만 습지, 지리산국립공원 등의 현장 견학 및 산업시찰로 구성됐다. 연수생들은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실질적 대응 기술을 취득해 향후 국가별 여건에 적합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香〉

재학생의 소리

“동경대 교류전·관악국수전이 인기 최고”



金瓚會 (전기정보공학12입) 바둑부 회장

우선 바둑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다른 대학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지대 및 대불대 바둑학과는 물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바둑부, 심지어 동경대 바둑부와도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명지대가 함께 준비하는 서연고명 교류전과 동경대 학생들과 1대1로 교류하는 동경대 교류전은 특기할 만한 행사입니다. 서울대 바둑부가 진행하는 행사가 교류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대학 바둑계에서 연세대 무악명인전과 쌍벽을 이루는 관악국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악국수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대회로 대학 바둑대회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악국수전이 열리는 날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대학생들로 관악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바둑부 내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매 학기 바둑부 팀리그를 개최해 바둑부원끼리 정기적으로 바둑을 둡니다. 1등 팀에는 상품을, 꼴찌 팀에는 벌칙을 걸고 진행하기 때문에 매번 긴장감이 넘

치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또 매주 한 번씩 프로바둑기사에게 지도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바둑부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에 교류가 뜸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동문 바둑대회가 있긴 하지만 재학생은 재학생끼리, OB 선배님들은 OB 선배님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동문 바둑대회 중에 재학생과 졸업생이 만나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대총동창회에서 바둑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학 바둑계에서 좋은 성적을 내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NU 희망장학금

“희망은 계속돼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소홀해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희망장학금 사용 용도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 전액 등록금 면제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매월 생활비 지급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해외수학비용 지원
 - ※ 가계소득 5분위 이하란? 환산소득 연 4천3백96만원 이하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기준)

희망장학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 ◆온라인 약정 : www.snu.or.kr
- ◆전화참여 : 02)880-8004, 02)871-8146
- ◆ARS 후원 060-700-8004(1통당 5천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吳然天

개도국 환경공무원 초청연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李鶴來)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3일 까지 개발도상국 환경분야 공무원 16명을 모교에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생태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金永穆)의 지원과 모교 산림과학부 尹汝昌(임학74-79)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개도국 원조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몰디브, 베네수엘라, 안티가바바다, 자메이카,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이 참여했다.



어디, 새로운 소재 없을까?

소재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믿습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피어난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

‘TORAY’ 도레이첨단소재

필름 광학용 필름 및 차세대 고기능 필름
섬유 위생용 및 산업용 부직포, 고기능 원사

IT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및 전자정보재료 등
친환경 수처리 사업 및 분리막, 생분해성 수지 제품

탄소섬유 산업용 탄소섬유, 탄소섬유 복합재료(CFRP) 등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용 소재 및 태양광 관련소재

콩트 릴레이

책 주사(注射)

朴 正 愛(신문89-93)

강원대 교수·소설가



의사로부터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어머니에게서 나는 태어났다. 나를 낳고도 딸을 둘씩이나 더 낳은 어머니는 그 후로도 자연유산한 세 번 하고, 중절수술을 두 번 받았다. 아버지는 갈수록 더 생활에는 무관심해졌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나가자니 어머니로서는 죽지 못해 사는 꼴이었다. 피를 쏟으며 쓰러진 적도 있고 임신중독으로 부풀린 술빵 모양이 된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당신 새끼나 짐승 새끼나 그 놈의 새끼들이 애련해 어디 도망가지도 못했다.

오빠가 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술술

거였다. 고등학교부터는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셋방을 얻어 자취를 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장 목돈이 필요할 뿐더러 부대비용도 만만찮게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골짜기에 있어 가지고는 내 자식들까지 농투성이밖에는 못 만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구려 버텨오던 농사일에도 정나미가 떨어져 버렸다.

어머니는 그 즈음부터 조금이라도 젊었을 적에 도시로 나가자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다. 도시에만 나가면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자식들 공부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아버지는, 무엇이고 결정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기다 아니다 말을

는 찬 밤바람 냄새와 함께 식어버린 풀빵한 봉지를 던져주곤 했다. 숙취 때문에 지각과 결근을 자주 했는데, 지각 세 번에 하루치 일당, 무단결근 하루에 사흘치 일당을 제해 버리는 무지막지한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월급이라고 해봤자 쥐꼬리 반 토막도 못 되기는 했다.

나는 도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비슷한 걸 당했던 것 같다. 그때의 외로움과 소외감은 내 첫 번째 소설 ‘에텐의 서쪽’에서 윤지의 경험 속에 녹아 있다. 가난뱅이 촌년으로 낙인찍힌 나는 마음 풀이 어떻게 태풍 지나간 뒤의 비닐하우스를 닮을 수 있는지, 송송 뿜린 마음 구멍으로 습한 바람이 웅웅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집에 오면 하나밖에 없는 방은 어머니의 털그럭거리는 재봉틀 소리로 언제나 시끄러웠고, 가지각색의 천 조각으로 어지러웠고, 자욱한 옷감 먼지로 매웠다.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는 밥냇을 가리지 않았다. 명절 대목이나 봄가를 결혼 시즌이 닥치면 어머니는 토끼눈을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재봉틀에 매달려 있기 일쑤였다.

나는 그 와중에도 어설피게나마 움썹움썹 자라고 있었으며 일상적 결핍과 소음과 억압에 적응하고 있었다. 젓가슴에 흥시만 한 몽우리가 생겼고, 나에게서는 눈길 한 번 주

로 독과한 다음이었을 것이다. 사나흘 재미나게 읽었으면서도, 나이에 걸맞지 않은 남독(濫讀)으로 난만 높아진 나는 ‘렌의 애가’를 문학소녀의 감상에나 어울릴 만한 책으로 치부한 후 다른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눈에 띈 ‘빨간 머리 앤’은 ‘렌의 애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겉보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리가 아팠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무거운 내용의 책을 시작하기 싫었다. 조금만 읽다 덮어두고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는 ‘빨간 머리 앤’의 첫 장을 펼쳤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세상의 모든 빗나감 중에 그런 빗나감처럼 기분 좋으면서 난감한 빗나감도 드물 것이다.

지긋한 나이의 독신 남매 매슈와 마릴라가 애당초 원하던, 농사일을 도와줄 사내 아이가 아니라서 고아원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고아소녀 앤의 처지, 비리비리한 말라깽이에 빨간 머리 소녀 앤이 한편으로는 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마릴라가 앤을 돌려보내려고 벌이는 신경전,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기대에 부푼 앤이 눈치코치 없이 초록색 지붕 집과 그 주변의 경관에 대해 끝없이 늘어놓는 수다에서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초록색 지붕 집의 아이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앤이 그 비참한 날의 아침에도 늘어놓는 수다는, 마릴라의 마음뿐만 아니라 읽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고 환한 빛으로 가득 채우는 힘을 가진 것이었다.

노름에 미친 사람이 “딱 한 판만 더 하고 끝내자”고 해놓고는 그 한 판이 두 판 되고 두 판이 세 판 되어 밤을 꼴딱 새우는 것처럼 나는 “딱 한 페이지만 더 읽고 집에 가자”고 다짐하면서 백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러고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자니까 주인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나는 차마 책을 덮지 못하겠어서 엉거주춤 든 채로 쭈뼛쭈뼛 아주머니 앞에 섰다.

“느거 집이 어데고?”

“조오게 서울우유 대리점 있는 데에.”

“그렇나. 난도 책 좋아하다 이래 책쟁이 안 하나. 느거 집에 거주하여 마저 읽고 날 아침에 굼기 돌리도고.”

“예. 고맙삼더.”

둥글고 하얀 동안(童顔)에 까만 빨데 안경을 써서 명랑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을 주는 얼굴의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새벽까지 책을 다 읽고 깜빡 잠들었다 늦잠을 잤다. 엄마의 호통소리에 억지로 일어나 눈곱을 떼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지만 워낙에 동작이 굼떠서 그에 학교에는 지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조회 시간에 두어 주일 전에 치렀던 글짓기대회 시상식을 했다는 게 아닌가. 나는 담임선생님께 한비탕 꾸증을 들은 뒤에야 내 뒤통의 상장을 받아 챙길 수 있었다.

나는 ‘빨간 머리 앤’을 돌려주고 나서도 가끔씩 서점에서 선 채로 그 책을 다시 아무 페이지나 들춰 읽곤 했다. 돌이켜 보면 사는 게 팍팍하고 우울할 때 그랬던 것 같다. 앤에게 공상이 필요했듯이 나에게서는 ‘빨간 머리 앤’과 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뇌에서 분비하는 강력한 진통 호르몬 엔도르핀. 정제나 주사약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빨간 머리 앤’ 같은 책을 주사기로 쓰면 가능할지도?

돈이 모이면 그런 문고판 책을 사 읽고,

돈이 없으면 서점에서 선 채로 읽었다.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고 서서

저녁 먹을 시간을 하염없이 넘기고 있으면,

서점 주인이 집에 가서 곱게 읽고

내일 가져오라면서 책을 빌려주기도 했다.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돈 나갈 일이 생겨 더 힘들어졌다. 당신 몸 쓰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돈 꿔달라고 입 때는 일보다는 쉬운 일이었다. 현금을 마련하느라 샅바느질도 하고 누에도 쳤지만, 십원 한 장 없을 때가 부지기수였다. 시아버지한테도 꾸고 종작집 아주머니한테도 꾸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의 사촌뻘인 일가 시숙 집에 십원 한 푼을 꾸러 갔다. 미술 시간 준비물인 도화지 한 장 값을 받아내지 못한 오빠가 학교에 벌써 도착했을 시간인데도 사립문을 붙들고 울고 있던 날이었다. 시숙은 어머니에게 십원을 던져주며 고대 빼아픈 소리를 중얼거렸다.

“지끔부터 돈 십원이 없어가 일갓집에 채로(빌리러) 댕가미드르 앞으로 자석덜 공부를 우에 시길라 카는공.”

어머니는 그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 분하고 창피한 것은 둘째이고 시숙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논 서 마지기 농사지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주체에 자식들을 중학교 이상 교육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헛된 희망사항일

않고 시간만 끌었다. 아니 아버지로서 고향에서 농사지어 굶지 않고 느릿느릿 살면서 목마를 때는 회관으로 내려가 막걸리를 받아 마시는 생활을 포기하기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역시 집요했다.

우리 가족은 마침내 막내가 네 살, 그 위의 동생이 여덟 살, 내가 열 살, 오빠가 열다섯 살 때 얼마 안 되는 논밭과 초가삼간이 나와 팔아서 대꾸로 이사를 갔다. 외할아버지가 자식들 공부시킬 밑전을 만들라고 어머니에게 재봉틀을 마련해 주었다. 솜씨가 좋아서 시골에서도 동네 바느질감을 도맡아서 피 했던 어머니는, 흰 바탕에 빨간 글자로 ‘한복’이라고 쓰인 조그마한 간판을 셋집 대문에 내걸었다. 오른손 검지를 잃은— 시골서 소여물을 썰다 작돏날에 잘려나갔는데 끝내 봉합하지 못했다— 손으로 하는 바느질이 었지만, 손님이 손님을 끌고 오는 식으로 어머니의 일거리는 끊이지 않았다.

비누공장에 다니던 아버지는 월급의 대부분을 공장 앞 술집에 가져다 바쳤고, 월급날 눈이 빠지게 당신을 기다린 식구들에게

지 않는 무심한 남자아이를 짝사랑하기 시작했다. 담임선생님이, 일기장 검사를 한 뒤 붉은 인주로 ‘잠 잘했어요’를 찍고는 그 밑에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브라자를 착용하도록’이라고 써주었고, 남자아이는 학년이 바뀔 때까지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나는 책이라고 생긴 것은 손에 잡히기 무섭게 읽어 치렀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고관 소설책 한 권에 기백 원 하던 시절이었다. 판형이 크고 황금색 표지를 한 어린이 문고는 좀 더 비싸서 천 원쯤 했지 싶다. 돈이 모이면 그런 문고판 책을 사 읽고, 돈이 없으면 서점에서 선 채로 읽었다.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고 서서 저녁 먹을 시간을 하염없이 넘기고 있으면, 서점 주인이 집에 가서 곱게 읽고 내일 가져오라면서 책을 빌려주기도 했다.

‘빨간 머리 앤’은 그렇게 해서 서점 주인에게 처음으로 빌려 읽은 책이다. 모운숙의 양장본 ‘렌의 애가’를 아여쁜 책표지와 애상적인 제목에 이끌려 이틀여 서점에 선 채

동 정

수 상

▲韓相福(사회56-61 모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오는 10월 11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동아일보 사로부터 제27회 인촌상(인문 사회문학부문) 수상.

▲鄭英一(경제58-64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농정연구센터 이사장)=지난 9월 7일 일가재단이 수여하는 一家賞(농업부문) 수상.

▲李慶秀(의학66-70 코스맥스 회장)=지난 8월 19~21일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강소기업가상 수상.

▲李相哲(전기공학67-71 LG유플러스 부회장)=지난 8월 19~21일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최우량기업상 수상. 또 오는 9월 30일 한국경제신문이 제정한 제22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李相雲(섬유공학70-76 효성 부회장)=오는 10월 11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동아일보 사로부터 제27회 인촌상(산업기술부문) 수상.

▲韓京錫(국어교육75-79 숭실대 교수)=지난 8월 19~21일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鄭金永(전기공학77-81 한국전력공사 서광주 지사장)=최근 전력산업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金惠正(독문82-86 듀오정보 대표)=지난 8월 21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장상 수상.

▲李善浩(금속공학85-89 두산중공업 선임연구원)=지난 8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정한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

▲金範洙(산업공학86-90 카카오 이사회 의장)=오는 9월 30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22회 다산경영상(창업경영인 부문) 수상.

▲白福鉉(경영87-91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8월 19~21일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崔政一(경대원92-94 숭실대 교수)=지난 8월 19~21일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金宗圭(AMP 29기 삼성출판박물관장·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지난 8월 20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환수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張炳韓(ACAD 70기 前한국교통대 총장·前충주대 총장)=최근 충북 충주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 수훈.

▲劉完鐘(SGS 16기 준원도시경관 연구센터장)=지난 8월 23일 제49회 기술사의 날 및 제7회 전국기술사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인 사

▲金洪春(법학58-62 前검찰총장·前법무부장관·前국회의원)=지난 8월 5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

▲孫炳斗(경제60-64 前서강대 총장·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지난 8월 7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제2대 이사장에 선임.

▲朴在甲(의학67-73 前국립암센터 원장·모교 외과학교실 명예교수)=지난 9월 1일 국립암센터 전문의사에 임명.

▲朴杉沃(지리68-72 前모교 평의원회 의장·지리학과 명예교수)=지난 8월 30일 전주 상산고 교장에 취임.

▲胡文赫(법학68-72 前모교 교수 협의회장·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9월 1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에 임명.

▲金旭(지질과학69-73 前駐시카고 총영사·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지난 8월 2일 한국수입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洪景植(법학70-74 前법무연구원장·前서울고검장)=지난 8월 5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

▲金能煥(법학71-75 前대법원 대법관·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9월 2일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에 선임.

▲朴曉雨(법학72-76 前駐벨기에·유럽연합 대사)=지난 8월 5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

▲金東奎(의학72-78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최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경외과학 교과서 'Youmans/Winn Neurological Surgery(7판)'의 'Radiation and Radiosurgery'분야 편집장에 위촉.

▲朴容晚(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지난 8월 12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임. 또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

▲吳俊(불문74-78 前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장·駐싱가포르 대사)=지난 8월 22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 임명.

▲尹敬繁(산업공학74-78 前하나로텔리콤 회장)=지난 8월 5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에 임명.

▲禹卿植(해양75-79 강원대 교수)=지난 7월 21~28일 체코 브르노에서 열린 국제동굴연맹 제16차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南重秀(경영75-79 前KT 사장·모교 컴퓨터공학부 초빙교수)=지난 8월 7일 임기 4년의 대림대 총장에 취임.

▲李仁根(토목공학75-79 서울시립대 교수)=지난 8월 28일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에 임명.

▲朴賢愛(간호76-80 모교 간호대학장)=지난 8월 19~2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4회 세계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

▲金奉烈(건축76-8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8월 26일 임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Imagine!

우리나라 모든 공대생들이 1학년 때부터, IEEE English for Engineering으로 공학영어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일! 그들이 만들어 나갈 The World Best Scientific Korea, Creative Korea & Global Korea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Bounce! Bounce! Bounce! Would you imagine together?

<http://english.ieee-elearning.org> 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기 4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제7대 총장에 임명.

▲金成貴(수학교육80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지난 8월 18일 제8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에 선임.

▲林煥守(정치81-85 前국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

▲金相浹(외교82-86 前정와대 녹색성장기획관)=최근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

▲鄭海鎭(해양82-86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최근 미국조류학회지(Journal of Phycology) 편집위원에 선출.

▲李星栽(의학83-87 단국대 재활의학과 교수)=지난 8월 19일 제19대 국립재활원 원장에 취임.

▲金炯錫(영문85-89 통일부 대변인)=지난 8월 19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에 임명.

▲尹美良(행대원88-91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지난 8월 19일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에 임명.

▲林炳逸(국제경제88-94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전무)=지난 8월 25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장에 선임.

▲裴景銀(제약89-93 젠자임코리아 대표)=지난 9월 1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朴鐵坤(AMP 60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지난 8월 28일 혁신장조경제포럼 창립대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7월 30일 한국불교총연합회총회 부총재에 취임.

▲김종식(ACAD 60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본부장)=지난 8월 6일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 편집출판본부장에 선임.

▲張光洙(AIC 28기 前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지난 8월 14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에 임명.

▲韓晚喜(ACPMP 1기 前국토해양부 제1차관)=최근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에 임용.

▲魏聖昊(ALP 15기 前신한은행 부행장·신한카드 부사장)=지난 8월 22일 신한카드 사장에 선임.

행 사

▲姜信浩(의학46-52 동아쏘시오 그룹 회장·수석문화재단 이사장·본회 고문)=지난 8월 8일 고교·대학(원)생 20명에게 장학금 1억5천만원 수여.

▲全英雨(국어교육53-57 수원대 명예교수)=최근 '키케로, 데오라토레' 전3권 가운데 1~2권을 번역한 '연설가에 대하여'(민지사) 출간.

▲魯仁煥(경제54-58 예술의 전당 음악당 자원봉사자)=최근 서울 예술의 전당 월간지 'Beautiful Life with Seoul Arts Center' 9월호에 15년간 자원봉사해온 인터뷰 기사 게재.

▲柳永益(정치55-60 한동대 석좌교수)=최근 초대 李承晩대 통령을 평가하고 조명한 '건국대통령 이승만'(일조각) 출간.

▲俞東濬(잠사56-60 先農會 회장·부운장학회 이사장·수원지부동장회장)=지난 8월 20일 서울 대방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에서 전국 대학(원)생 2백24명에게 장학금 2억2천7백만원 전달.

▲趙明翰(심리57-61 모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최근 언어심리학의 담화 처리 방법을 취한 '누가복음의 이해'(한나래) 출간.

▲趙允(조소59-63 공예가)=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관훈동 가나아트스페이스와 인사동 공예갤러리 '나눔'에서 한지작품전 개최.

▲洪范基(법학59-63 직도출판사 대표)=지난 8월 15일 삼국통일 역사소설 5부작 '사랑과 대망'(직도출판사) 출간.

▲柳莊熙(경제59-63 동반성장위원장)=지난 8월 20일 위원회 사무국에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 발광다이오드업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9월 1일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생태교통축제에서 '생태교통수원 2013, 예술로 말하다'를 주제로 문학, 미술, 사진 벽화예술전 개최.

▲潘基文(외교63-70 유엔 사무총장)=지난 8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UN WTO ST-EP 재단과 월간 Diplomacy가 공동 주최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빈곤퇴치 포럼에서 기조연설.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8월 29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경북대 이은정 교수를 초청해 월례발표회 개최.

▲崔鴻圭(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교대원 동창회장)=오는 10월 1일부터 2학기 동안 독일 뮌헨대 철학종교학부 객원교수로 한국학 특강.

▲張世昌(전기공학65-69 파워텍스 회장·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지난 9월 10~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국전기산업대전 개최.

▲諸葛政雄(상학65-72 前대림대 총장)=이달부터 중국 산둥성 산둥이공대 초청을 받아 6개월간 특강하며 중국문화 연구.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영기계 韓今泰 회장을 초청, '세계를 석권한 삼영기계의 강소기업 스토리'를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7월 30일 6·25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외면 63년'을 주제로 특강.

▲崔炳敏(외교71-75 한국국제지연합회장)=지난 8월 26일 서울 관수동 써튼호텔에서 미안파 제지협회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명문대 동창회 제휴사 엔노블

서울대학교 동문회, 고려대학교 동문회, 이화여자대학교 동문회, 성균관대학교 동문회, 연세대학교 동문회, 서울대학교 동문회, 한국경제신문, KBS TV가이드, 2012 모범기업인대상, 2012 국가보훈복지지원위원장상 수상, 성훈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철저한 3:1 비공개 회원관리,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멤버십 제휴혜택(하나투어, 코오롱스포츠 서초점, 르네상스 호텔 등)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훈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0-16 삼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치대, 서강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다양한 전문직, 관/공기업 제휴 (치과 공보의 협의회, KOTRA, 서울시 공무원 노조 등)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

▲魯貞鎰(의학71-77 모교 병원
어린이병원장)
=지난 8월 31
일 모교 병원 본
관 C강당에서
'학교를 다니는
적수이형성증아
이들의 대소변문제'를 주제로 공
개포럼 개최.

▲柳權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
학교실 교수·아
태암예방기구 사
무총장)=지난
8월 27~31일
라오스비엔티안
을 방문해 '국가
암관리'를 자문하고 태국 방콕에
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아시
아 국가암관리'를 주제로 특강.

▲丁海日(의학72-78 모교 소아과
학교실 교수·희
귀질환 진단치료
기술 연구지원센
터장)=지난 8
월 23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생
명연구원에서 제7차 희귀질환 국
제심포지엄 개최.

▲李春吉(심리73-77 모교 심리학
과 교수)=지난 9월 8일 모교 관
악캠퍼스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뇌인지콘서트 개최.

▲高廷植(화학공학73-77 한국광
물자원공사 사
장)=지난 8월
28일 제2회 CO-
REA(Campus
Ore Reserve
Estimation A-
rena) 경진대회 개최.

▲趙炳顯(법학74-78 서울고등법
원장)=지난 8
월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
청사에서 서울성
모병원과 법원
구성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李勝鍾(사회교육75-79 모교 행
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
구원장)=지난
8월 28일 일본
자치체국제화협
회 서울사무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연구회 개최.

▲李珉柱(회화76-80 한국·인도
현대작가교류회
장)=지난 8월
27~31일 서울
팔각동 월전문화
재단 한벽원갤러
리에서 제9회
한국·인도 현대미술교류전 개최.

▲李旺載(의학76-82 모교 해부학
교실 교수·의대
통일의학센터 소
장)=지난 8월
27일 모교 연건
캠퍼스 의대 대
강당에서 제3회
통일의학포럼 개최.

▲鄭宗燮(법학77-81 모교 법학부
교수)=최근 대
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다룬 '대
한민국 헌법이야
기'(나남) 출
간.

▲鄭天基(의학77-83 모교 신경외
과학교실 교수·
대한척추중양연
구회장)=지난 8
월 17일 국립암
센터에서 제8차
학술대회 개최.

▲安奇順(회화78-83 윤우D&C
대표)=지난 8
월 10~19일 서
울 인사동 아카
스페이스에서 미
술시대·아카스
페이스 기획초대

전 개최.
▲柳鍾秘(철학78-85 서울시 관악
구청장)=지난
8월 20일 인생
면면을 고찰한
색다른 인생 오
디세이 '좀 다르
게 살아도 괜찮
아'(메디치미디어) 출간.

▲申惠晶(기악82-86 피아니스
트)=지난 8월
11일 서울 예술
의 전당 IBK챔
버홀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Liszt와 함
께 떠나는 순례 여행'을 주제로 피
아노 독주회 개최.

▲李美淑(서양화84-88 한국교원
대 강사)=지난 8월 28일부터 9
월 3일까지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
스에서 '하나하나 하나가 아닌-
선과 점'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林聲伯(농촌사회교육89-93 성
결대 교수)=
최근 '한국 국
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 출간.

▲趙允敬(기악91-95 단국대 초빙
교수·피아니스
트)=지난 9월
9일 서울 신문
로1가 금호아트
홀에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朴恩慶(기악92-96 피아니스
트)=지난 9월
1일 서울 예술
의 전당 리사이
틀홀에서 무소르
그스키, 쇼팽 등
의 작품으로 피
아노 독주회 개최.

▲李尙恩(기악93-97 부천필하모
닉 오케스트라 제1수석·플루티스

트)=지난 9월 4일 서울 여의도
동 영산아트홀에서 플루트 독주
회 개최.

▲엄성화(성악95-02 서울아버지
합창단 지휘자·
테너)=오는 9
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
임버홀에서 독창
회 개최.

▲백경혜(기악01-05 피아니스
트)=지난 8월
11일 서울 신문
로1가 금호아트
홀에서 Lab
Trio 정기연주
회 개최.

▲金正模(조소05-09 설치작가)

=지난 8월 3~13일 서울 안국동
사이아트갤러리에서 'Good bye
안녕'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姜榮中(AMP 28기 대교문화재
단 이사장)=지
난 8월 29일부
터 9월 1일까지
중앙대 서울캠퍼
스에서 '대교
Eye Level 국제
학생작품 심포지엄' 개최.

▲郭載善(AIP 32기 이데일리 회
장)=지난 8월
16일 세종대
후기 학위수여
식에서 명예경
영학 박사학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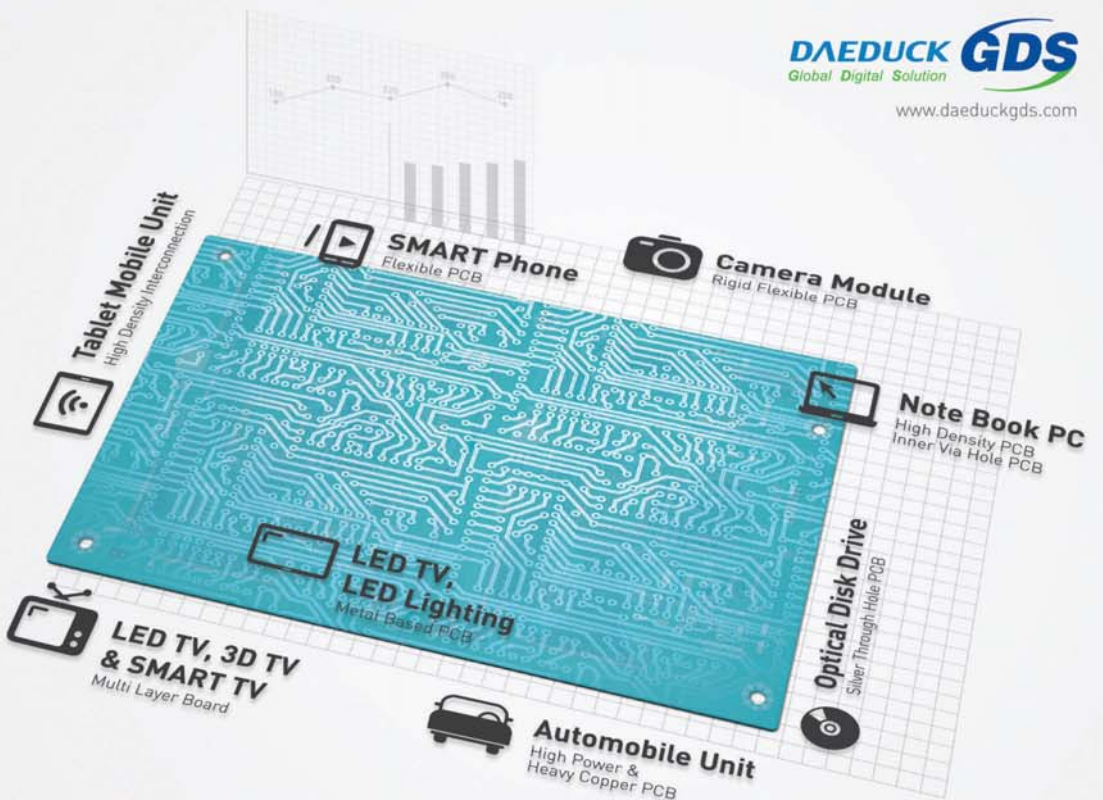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李杜鉉(국어교육46-50 모교 명예교수)=8월 17일 별세(89세)
- ▲安容九(기악46-51 전파바디음악원 교수)=8월 14일 별세(85세)
- ▲姜斗植(독문47-51 모교 명예교수)=8월 1일 별세(86세)
- ▲崔榮博(토목공학48-55 前수원대 총장)=8월 2일 별세(87세)
- ▲安相鎭(철학49-53 모교 명예교수)=8월 28일 별세(87세)
- ▲黃迪仁(법학52-57 모교 명예교수)=8월 16일 별세(84세)
- ▲宋基德(건축52-57 정일엔지니어링 대표)=8월 8일 별세(80세)
- ▲姜龍植(농경제53-57 前예산농촌지도소장)=8월 18일 별세(81세)
- ▲李根模(화학교육53-57 상명대 명예교수)=8월 9일 별세(80세)
- ▲白樂量(독문56-60)=8월 15일 별세(74세)
- ▲李汎求(토목공학59-63 前수자원공사 고문)=8월 23일 별세(72세)
- ▲朴錦玉(성악59-63)=8월 8일 별세(72세)
- ▲白相稷(행정59-65 前한신증권 전무)=8월 3일 별세(74세)
- ▲南相高(국문60-64 前중앙고 교사)=8월 4일 별세(73세)
- ▲朴仁淑(간호74-78 前일간스포츠 편집위원)=8월 23일 별세(58세)
- ▲金鍾律(공법85-90 前국회의원)=8월 13일 별세(51세)
- ▲高義善(AMP 41기 국회의원)=8월 25일 별세(64세)
- ▲丁煥守(ABP 15기 前기업은행 부행장)=8월 1일 별세(56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보이지 않는 기술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활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덕GDS의 PCB제품은 당신이 노트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휴대폰 영상으로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만날 때도
가족들과 TV를 즐길 때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세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기술로 대덕GDS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한번째 이야기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맛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SM7 3.5를 가진 자의 여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큰 만족, 지금 SM7을 타시는 분들이 보증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시간에 쫓길 때, 공간이 작을 때, 우리는 여유를 느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큰 당신이기에 당신의 여유를 위해서는 더 큰 공간, 더 큰 파워가 필요합니다. 지금 SM7 3.5를 만나보세요. SM7을 타고 계신 분들이 당신의 선택을 보증합니다. 당신이 꿈꾸던 여유, 세계가 인정한 VQ35 V6엔진의 큰 파워를 느끼는 순간 시작됩니다.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M VQ25 : 복합연비 10.2km/l (도시 : 8.9km/l, 고속도로 : 12.2km/l), 2단 6단 CO₂ 배출량 174g/km, 배기량 : 2,466cc, 공차중량 1,535kg, 4등급. SM VQ35 : 복합연비 9.4km/l (도시 : 8.2km/l, 고속도로 : 11.7km/l), 3단 6단 CO₂ 배출량 189g/km, 배기량 : 3,498cc, 공차중량 1,640kg,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기상조건에 따라 상주할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081-300-3000, 02-300-3000) 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 (www.renaultsamsung.com)를 문의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RENAULT SAMSUNG MOTORS

SM7

www.sckkj.com



성신화학(주) 대표이사 김 권 진

ISO9001, ISO14001, TS16949, UL인증
기아현대자동차 SQ인증 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경영혁신)
- 경기도 중소기업인상 수상(기술혁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E.N.G 사출성형 및 금형제작 전문업체

SUNG SHIN CHEMICAL VISION21 & OBJECTIVE

성신화학주는 풍부한 기술력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IT 관련 정밀사출 금형제작 업체로써 금형설계와 제작, 사출성형 및 후가공 부품조립까지" 한곳에서 One stop 생산시스템으로 고객제일주의와 품질제일주의로 고객과 함께 성장 발전해 오늘에 이르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DMB 네비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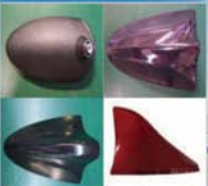
전화기(KT Ann Phone 유무선)



USB 모뎀



O/A기기(복합기)



자동차 안테나

■ 본사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7-25 TEL : 031-459-1460(대표) FAX : 031-459-1463
■ 지점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31 TEL : 031-427-1536(대표) FAX : 031-427-1539

■ 당동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동 168-7 TEL : 031-455-1134(대표) FAX : 031-457-9088

혁신은 내가 한다



www.baekje.org



제59회 Baekje Cultural Festival
백제문화제
2013 09.28-10.06
금동대향로의 세계
충청남도 공주시 · 부여군

공산성과 금강의 가을 하늘을 수놓을
중부권 최대의 불꽃쇼
환상의 불꽃쇼를 공주에서 감상하세요

2013. 9. 28.(토) 18:30/금강신관공원 주무대

www.baekje.org



20년 연속 **1등**
(World's Best)



아세아농업기계
오직 이 한 분야에서만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농업기계 만들기 반세기를 이어온 아세아농업기계는
떨어진 한 알의 이삭도 소중히 여기는 농업인의 마음과 그 정성으로
농기계업체에 주어진 사회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21세기 선진농업실현"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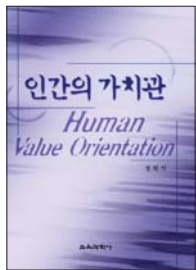
주식회사 아세아텍
ASIA TECH. CO., LTD.

• 본 사 : (053)580-7777 • 서울사무소 : (02)547-8098 • 중부영업소 : (043)537-8235 • 호남영업소 : (062)956-8627
• 경기.강원영업소 : (031)335-8242 • 경.남북영업소 : (053)580-7811 • 중국수광영업소 : 86-536-510-3300, 3367

신 간

■ 인간의 가치관

— 鄭元植 지음



국무총리, 문교부 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모교 교육학과 鄭元植(교육48-54 본회 고문) 명예교수가 가치관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가치관의 발달, 가치관의 결정요인, 가치관의 개인차, 가치관의 교육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이 책에서 가치 또는 가치관이란 특정대상(사람, 사물, 현상, 사건 등)에 대해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태도의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근원적 심리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과학사刊·값15,000원〉

■ 용기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심리학의 지혜

— 鄭寅錫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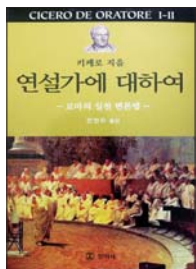
명했다.

이 책은 애들러 심리학의 관점(목적론, 전체론, 현상학, 대인관계론, 실존주의의 이론)에서 대인관계, 가족, 학교, 직장에서의 생활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사람과 자기 자신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서술했다.

저자는 어떤 실패도 자신의 사고를 가능성 사고로 전환만 시킨다면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장애를 재산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대왕사刊·값14,000원〉

■ 연설가에 대하여

— 全英雨 옮김



~2권을 번역했다.

이 책은 키케로보다 1세대 앞선 걸출한 연설가 크라수스와 안토니

우스가 그들에게 심취한 젊은이들과 함께 로마 투수쿨룸의 크라수스 별장에서 연설가와 변론법에 대해 논의한 담론을 키케로가 기록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법정 변론, 의회 변론, 집회 변론 등에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현장 변론의 지침서이자 변론법 개요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고전이다. 〈민지사刊·값15,000원〉

■ 정치학개론

— 李相禹 지음



서강대 교수, 한림대 총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등을 지낸 신아시아 연구소 李相禹(행정57-61) 소장이 정치체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담은 정치학 입문서를 펴냈다.

이 책은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한국정치의 개관,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 등 세 가지를 다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성숙된 시민자율의 바른 민주정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민주정신을 높여야 하며,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름刊·값17,000원〉

■ 북미 인디언의

민요를 찾아서

— 李滕娜 지음



편찬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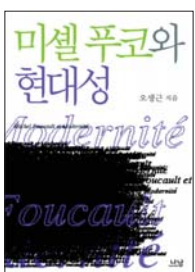
하버수파이 인디언, 아키텔 오오담, 토호노 오오담, 나바호, 아파치, 아퀴, 푸에블로 인디언, 포모 인디언, 북서 해안 지대, 네즈페르스 인디언, 이로쿼이의 북촌, 에스키모, 야생벼 지대 등 인디언의 민요에 대한 해설과 사진을 수록했다.

부록에는 2010년 6월에 거행된 쿠스코의 태양축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민족음악연구소刊·값15,000원〉

■ 미셀 푸코와 현대성

— 吳生根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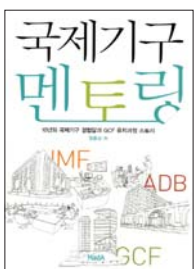
모교 불어불문학과 吳生根(불문66-70) 명예교수가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의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어처럼 쓰이면서도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 놓았다. ‘푸코와 바타유’는 푸코의 경험과 바타유의 경험이 어떻게 일치되고,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말과 사물과 인간의 죽음’에서는 인식론의 차원에서 휴머니즘의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나남刊·값18,000원〉

■ 국제기구 멘토링

— 鄭弘相 지음



행 등 국제기구 근무 경험담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과정의 스토리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한국의 고위 관료로서 ‘강산이 한 번은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국제기구에서 ‘실무자’와 ‘관리자’로서 일한 鄭동문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국제기구 체험담이자 안내서.

국제기구의 의미에서부터 그들이 지닌 세계적 위상과 기능, 나아가 그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한다. 〈하다刊·값13,500원〉

■ 뇌전증의 이해와 극복

— 徐大源 지음



다양한 사실과 뇌전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준다.

디지털 뇌파, 비디오-뇌파 입원 검사, 새로운 뇌영상 등의 진단적 방법과 제3세대 뇌전증 약제, 수술적 뇌전증 치료, 새로운 기전적 치료 등의 치료적 방법을 설명하고, 일러스트와 사진을 통해 뇌전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신원의학서적刊·값30,000원〉

■ 히스토리야 노바

— 朱京哲 지음

모교 서양사학과 朱京哲(경제

정리했다.

이 책에 수록된 12편의 논문 중 ‘푸코의 현재성과 현대성’은 현재성과 현대성이 동의

공연

■ 金男洙 트럼펫 독주회

— 9월 27일 금호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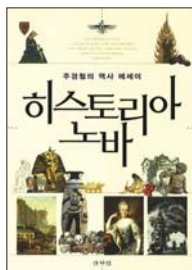


성신여대 겸임교수,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 MUSE 윈드 오케스트라 수석 등으로 활동 중인 金동문은 이날 프랑스 작곡가 토마지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이 훈 피아노 독주회

— 9월 29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이 훈(기악00-04) 동문(사진)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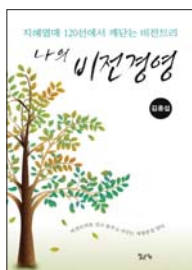


속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했다.

특히 동서양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문명과 문화, 사람, 전쟁, 사회, 정치 등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뽑아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식을 되짚어볼 수 있는 색다른 관점과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1백20여 컷의 컬러 도판을 실어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생생히 전달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산치림刊·값18,000원〉

■ 나의 비전경영

— 金弘燮 지음



120선에서 깨닫는 비전트리’ 부제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다양한 인물과 사례를 담은 오늘날 시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등을 졸업했으며, 현재 한양대·명지대·경희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韓慶鎮 작곡 발표회

— 10월 3일 예술의 전당



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韓동문은 현재 한국작곡가협회 실행이사, 아시아작곡가연맹·장악회·소리목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의적절한 1백20개의 주제로 비전경영의 방향,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부는 비전이 달라야 성공한다, 2부는 변화시대의 새로운 경영원리, 3부는 인간 삶 속에서 경영은 어떤 모습인가, 4부는 왜 그들은 성공하는가를 담고 있다. 〈맑은나루刊·값14,200원〉

■ 朝鮮前期易哲學史

— 嚴連錫 지음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嚴連錫(철학84-88) 교수가 조선초 권근으로부터 鄭道傳, 世宗을 거쳐 李滉, 曹植, 李珣에 이르기까지 조선전기 역철학의 핵심 내용을 집대성했다.

이 책은 조선전기 학자들의 주역에 관한 학설을 인물에 중점을 두면서 시대순에 따라 象數와 義理 그리고 圖象과 같은 역철학적 관점에 유의해 계통별로 분류했다.

조선시대 여러 학자들의 역철학 사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역철학이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을 정립시키고 문물제도를 구성하는 데 핵심 원리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지원刊·값39,000원〉

www.vincoedu.co.kr

대한민국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VINCOEDU

02.

통합교육시스템

- 원격강의
- 방문교육
- 학원솔루션

01.

PTC 3 Step System

- Education 교육플래너
- Teaching 교사
- Caring 에듀바이저

03.

커리큘럼

- 고1, 고2, 고3
- 중1, 중2, 중3



빈코에듀

(주)빈코에듀 (주)빈코하이유 (주)에듀프렌즈

회장 강인목(AIC 33기)

PTC 3 Step System

- STEP 01 Education 교육플래너
학습태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의 학습 수준을 체크, 수준별 학습전략과 계획 및 정확한 방향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제시
- STEP 02 Teaching 교사
서울명문대 출신, 강남지역 전문교사의 탁월한 실력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체계적 눈높이 학습을 제공
- STEP 03 Caring 에듀바이저
수업만으로 끝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의 에듀바이저가 학생의 학습교사의 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 학습태도 및 출석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TEST를 통하여 성적 집중 관리

통합교육시스템

- 원격강의(e-live private lesson) - 첨단 멀티 시스템을 이용한 생생한 라이브 수업
- 방문교육(off-line private lesson) - 빈코에듀만의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맞춤 수업
- 학원솔루션(multimedia group lesson) - 학원수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그룹수업

본사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7-1 대표전화 : 1577-5521 FAX : 031-944-9881



國際庭球聯盟

INTERNATIONAL SOFT TENNIS FEDERATION

會長 / Sports 外交學博士

朴 相 何

(ACAD. 국가정책 28기 회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361-1 미주빌딩 10F TEL : 053-426-7117 FAX : 053-427-7095 Mobile : 010-4058-8811 E-mail : parksh7117@hanmail.net

태양기업은 32년간 각종 건조설비를 주문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건조설비, 소성로, 소각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건조설비를 귀사와 공동개발 제작합니다.

원적외선, 자외선, 근적외선, 열풍건조기 설계 제작



태양기업

TEL. 032-816-9051~4 / FAX. 032-816-9055
www.dryoven.com kpma7@naver.com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서울대학교 총 동창회 24대 이사
300만불 수출탑 수상

코팅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유)

평택센터 (HQ)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길 49

T. 031 680 9900 F. 031 680 9905

www.oerlikon.com/balzers/kr info.balzers.kr@oerlikon.com

THE SMOOTH REVOLUTION
Follow the Flow of Intelligence!

한국오페라진흥회 이사장 / 회장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UFA 국립예술종합대학교 석좌교수

명예음악학박사 **金辛煥** (생물학과 52入)

- 前)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장 / 교수
- 前)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사장
- 前) 서울시립오페라단 단장

E-mail. shinwhan@hanmail.net | Fax. 031.943.6585 | Tel. 031.942.6624 | Mobile. 010.8577.0924

www.toilet.or.kr



해우재 (세계 최대크기의 변기모양 화장실 전시관)

KTA 한국화장실협회
Korea Toilet Association

나의 작은 배려,
아름다운 화장실의 시작입니다.

My small care, the start of beautiful toilet

- ♥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랑의 화장실 지어주기
- ♥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
- ♥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시행(SPS)
- ♥ 화장실 문화 발전을 위한 화장실 문화축전
- ♥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공무원 교육
- ♥ 화장실관련 정부위탁 연구용역
- ♥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회장 김종해

한국화장실협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선도합니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3년 7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3. 5. 21 ~ 8. 23) · 일반 (2013. 5. 21 ~ 8. 23)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金貞植= 1백만원
△부회장 劉鐘海= 50만원
△부회장 朴熙伯= 1백만원
△부회장 崔斗衡= 1백만원
△부회장 李世中= 50만원
△부회장 孫京植= 1백만원
△부회장 禹仁性= 1백만원
△부회장 朴成勳= 1백만원
△부회장 孫吉晝= 1백만원
△부회장 趙炳祐= 1백만원
△부회장 朴浩田= 1백만원
△부회장 李鍾基=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李禮植= 30만원
△이 사 安聖哲= 30만원

△이 사 鄭啓泳= 30만원
△이 사 朴明潤= 30만원
△이 사 金炯周= 30만원

상임이사

△朴武益 인문대동창회장= 20만원
△梁光姬 간호대동창회장= 20만원
△崔明珍 생활대동창회장= 20만원
△李文漢 수의대동창회장= 20만원
△申秀貞 음대동창회장= 20만원
△朴健培 치대동창회장= 20만원
△崔鍾庫 대학원동창회장= 20만원
△李世漢 AIC동창회장= 20만원
△趙鍾根 GLP동창회장= 20만원
△李一鎬 KFL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석훈 사회⑧

△김정우 사회⑦ △김종복 AFB①
△김태병 법대⑧ △배정은 상대⑨
△서승일 법대⑦ △신기찬 AMPP②
△안치석 의대⑦ △윤명로 미대⑤
△이세준 공대⑧ △임철호 공대⑦
△전인해 GLP④ △정정길 법대⑥
△최병모 법대⑦ △최상호 공대④

〈일반〉 △강용찬 농대⑥
△강찬균 미대⑤ △고충근 FIP⑨
△권오하 농대⑧ △권필녀 AMFR③
△김경렬 문리⑦ △김기준 사대⑤
△김남일 사회⑦ △김대철 공대⑧
△김동욱 공대⑩ △김유신 공대⑦
△김재훈 공대⑤ △김정은 음대⑩
△나풍운 법대④ △류희근 HPM④
△문병현 BCP① △박경조 AMPP⑫
△박성규 공대⑤ △박영희 법대⑥

△박정재 공대⑨ △박종근 공대⑦
△백수영 인문⑧ △백현준 농대⑥
△송준덕 經院⑧ △양병섭 공대⑩
△양선장 ASP⑥ △염유신 공대⑦
△오세영 간호⑥ △오영복 AFP①
△오재윤 의대⑧ △오형호 음대⑧
△오호진 ACP⑨ △유성재 BCP①
△유재원 사회⑦ △이동명 의대⑦
△이동인 ALP③ △이의남 공대⑥
△이정의 공대⑨ △이지은 법대⑥
△이희범 AFB⑫ △장이찬 의대⑦
△전덕영 농대⑦ △조규진 경영⑦
△조아서 공대⑦ △최철우 인문⑧
△최하경 經院⑧ △한종률 공대⑦
△황경화 사대⑤

이 사

◆인문대 △김희갑⑧ △황태순⑦
◆사회대 △김 영⑦ △김광녕⑧
△김창균⑩ △김태기⑦ △박찬욱⑦
△방창식⑧ △오재석⑦ △장철호⑧
△전홍찬⑦ △정응근⑧ △주진혁⑦
△황기호⑦
◆자연대 △금종해⑦ △민영철⑦
△박종희⑧ △이태립⑦ △장대연⑦
◆간호대 △박상연⑧
◆경영대 △김근수⑦ △박기준⑧
△서정호⑧ △유경연⑤ △임기찬⑨
△전용주⑧
◆공대 △강경일⑦ △강효순⑧
△강희신⑤ △곽상철⑦ △권익현⑥
△김 훈⑦ △김경호⑦ △김광욱⑤
△김대모⑥ △김대식⑦ △김덕재⑤
△김병길④ △김병만⑧ △김상훈⑩
△김성환⑥ △김영신⑧ △김인동⑩
△김정섭⑦ △김진기⑧ △문찬국⑦
△박동서⑥ △박성규⑦ △박신동⑤
△박종택④ △박철규⑧ △박형기⑧
△박화규⑦ △배재훈⑦ △변순전⑤
△부창렬⑦ △서동식⑧ △신동식⑤
△심한배⑦ △양 갑⑧ △양운재⑥
△염사연④ △오세기④ △유재운⑦
△윤석구③ △이명호③ △이승기⑦
△정금영⑦ △정순전⑥ △정대영⑦
△정형수⑤ △조규남⑦ △조재현⑦
△최정우⑧ △하태훈⑦ △한도석⑦
△홍민표⑦ △홍성완⑥ △홍성일⑥
◆농대 △권태호⑦ △김경미⑧
△부경생⑥ △서기호⑥ △오원식⑧
△유 석⑤ △유병두⑦ △이건일⑥
△이광희⑧ △이규승⑦ △이선진⑥
△정재용⑦ △조국광⑦ △조규태⑦
△조민식⑦ △조진환⑤ △한갑준⑤
△홍동선⑤
◆문리대 △김 욱⑥ △김상하⑤
△김진동⑤ △문희수⑥ △박의승⑥
△서옥식⑥ △유양수⑦ △윤호미⑥
△이용태⑤ △이용화⑤ △이정수⑤
△이정윤⑤ △임형두⑦ △진홍순⑦

△채영수⑧ △한필순⑦ △황인광③
◆미대 △권석봉⑧ △김영대⑦
△백문기④ △송복희⑦ △신수진④
△조정승⑤
◆법대 △강병섭⑧ △권광중⑥
△김범수⑧ △김상우⑧ △김성수⑧
△김승호⑧ △김영수⑦ △김영훈⑤
△김인겸⑧ △김정삼⑦ △김준규⑦
△김진우⑤ △김철수⑤ △김호응⑦
△박상기⑤ △박수복⑦ △박승문⑦
△박윤환⑤ △박정규⑦ △박준서⑤
△박준서⑤ △박태훈⑥ △박형관⑤
△박환승⑧ △서정석⑦ △손기식⑧
△안상수④ △윤성태⑥ △윤호일⑥
△윤홍근⑦ △이기배⑦ △이민재⑦
△이주성⑦ △임성규⑦ △전명호⑧
△전재기⑤ △정한성⑤ △정호영⑥
△조남욱③ △조용무⑥ △주우식⑦
△지성우⑥ △지홍원⑤ △최병륜⑤
△황영하⑤
◆사대 △강경돈⑦ △김남조⑦
△김봉근⑥ △김승재⑦ △김종필④
△김찬균④ △김천수⑤ △김학천⑤
△나민주⑤ △박병기⑧ △박영미⑦
△박형준⑥ △박효석⑦ △방재욱⑧
△손영목⑥ △염영주⑥ △오윤용⑥
△오창훈⑧ △윤재석⑦ △이규석⑥
△이동식⑦ △이봉수⑦ △이선준④
△이오봉⑥ △이원호⑧ △이호준⑥
△정광삼⑤ △정귀생⑤ △정원식④
△주기성⑦ △채미영⑧ △최동환⑦
△최병순⑥ △최상훈⑦ △최성재⑤
△최희유⑧ △허영섭⑦
◆상대 △권영식⑥ △김덕기⑤
△김성규⑦ △김영섭⑥ △김창진⑤
△박태하⑤ △서승원③ △손재환⑥
△송병락⑤ △신양우⑦ △유석홍⑥
△이종백⑥ △이태환⑤ △장종록⑦
△전종환⑤ △정 용⑥ △정재택⑤
△정태웅⑦ △차태균⑦
◆생활대 △여의주⑧ △우경자⑥
◆수의대 △나기식④ △박호인⑦
△염영호⑦ △오효성⑦ △조후익⑤
◆약대 △김길수⑥ △김선중⑥
△김재환⑥ △손인자⑥ △신화용④
△지현석⑤ △허 상⑤
◆음대 △김혜중⑥ △민미란⑦
△이서현② △이오규⑦ △이재숙⑤
△이준성⑧ △전신주⑦ △하주화⑦
◆의대 △강세윤⑤ △김명호⑧
△김상은⑦ △노충희⑦ △박동현⑦
△박상용⑦ △백낙환④ △손근찬⑤
△손기섭⑤ △신기철⑦ △오승환⑤
△유세화⑤ △윤유석② △이건용⑥
△이태연② △정두용⑦ △정용인⑥
△한병채⑤ △허준평⑦ △홍창의⑤
◆치대 △구본석⑦ △김경남⑦
△김종철⑦ △김종태⑦ △김홍석⑤
△박기성⑤ △배현성④ △손일수⑦
△오세웅⑨ △이만선⑥ △이봉재⑤

기본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기업 (주)티엠씨 (주)KPF



songhyun
TMC

songhyun
KPF



(주)티엠씨는 세계1위의 선박용 전선과 국내 최대의 인도어 광케이블 제조업체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KPF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화스너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1위 정밀단조기업을 목표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 송 무 현

songhyun
TMC

(주)티엠씨 www.tmc-cable.com
충남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368-7
Tel : 041-589-6500

songhyun
KPF

(주)KPF www.koreabolt.co.k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Tel : 031-500-4800

△이재봉⁷⁰ △임종수⁸¹ △임채균⁵³
△최순철⁷³ △현기용⁷⁷
◆대학원 △김진경⁹³ △문두길⁸⁷
△문형근⁷⁹ △박성호⁹⁵ △박영득⁸²
△이광재⁷⁸ △이범수⁸⁵
◆경대원 △김선대⁷² △김정태⁶⁸
△김한준⁸⁹ △박원봉⁶⁸ △최원영⁹³
◆교대원 △송향섭⁶⁴
◆보대원 △권혁한⁷⁵
◆신대원 △김우룡⁷¹ △김이환⁷²
◆행대원 △곽대훈⁷⁸ △권기성⁷⁷
△배문환⁶³
◆현대원 △강길부⁷⁶ △양언모⁸²
◆AMP △권영선³ △권오영⁶⁴
△김수환¹⁵ △김관진⁵³ △남재호⁶³
△서호근⁶⁰ △양성욱¹ △유해준⁴⁰
△이병구¹⁶ △이병성² △조봉구¹⁹
△조형수⁵⁸
◆AIP △김서규⁴⁰ △김성길⁷
△김후근¹⁷ △박영구³¹ △박영기²⁹
△오태호³³ △윤여순²⁷ △이덕영²³
◆ACAD △강동화⁶⁸ △김철환⁴⁶
△노재우¹⁶ △박명규⁴⁰ △신은우⁵⁶
△정송학⁵⁴ △정시채⁹
◆ABP △심형보¹⁶ △정공훈²²
◆HPM △최종환¹⁰
◆AMPP △김종민⁴ △송실광⁷
△홍석우⁹
◆AIC △김동현²⁵ △김영식²⁹
△류진국¹ △이경의⁵ △이경호⁷
△이일로¹ △이정재² △조정구⁸
◆AFB △이혁한⁹
◆AMPFRI △강태호²² △김경호¹⁵
△한기영³ △한봉수⁹
◆ACPM △박상남³ △우순근⁷
◆GLP △김경식² △김영훈¹⁸
△김용태¹⁷ △손영수³ △양재길⁵
△윤석호⁷ △윤재호¹⁴ △이석형¹²
◆ALP △김승제⁴ △손용근⁶
◆ANMP △엄옥봉¹
◆SPARC △김인환² △이덕록⁷
△이수원¹⁵ △최승수¹²

일 반

◆인문대 △강태승⁹³ △구자현⁷⁷
△김성환⁹⁶ △김윤미⁹⁷ △김혜은⁹⁵
△남궁찬⁸³ △박국상⁸² △서선령⁸⁷
△성기혁⁹⁶ △송재봉⁷² △신완섭⁹⁶
△심윤남⁸² △안정민⁹⁵ △오성민⁹⁷
△원종명⁹⁹ △이아녜스⁹⁷ △이용기⁸⁶
△이용진⁹⁵ △이형구⁸⁴ △이흥균⁷¹
△장대철⁸⁴ △정지원⁹⁵ △정진기⁸⁶
△조현명⁹⁸ △진영규¹¹ △진지은⁹⁵
△최종윤⁹³ △최희중¹⁰
◆사회대 △권상우⁹⁸ △권순목⁸³
△권철원⁹³ △김경수⁹⁰ △김계수⁸¹
△김대규⁹⁷ △김봉준⁹⁰ △김성희¹⁰
△김소라⁹⁸ △김영생⁸¹ △김용대⁷³
△김재우⁹⁷ △남현선⁹⁵ △박덕환⁷²
△박순일⁹⁰ △박종철⁹⁰ △박준서⁸⁰
△손석준⁹⁶ △송 화⁹³ △신병주⁹³
△신영호⁸⁸ △양윤석⁸⁴ △여지윤⁹⁸
△유연정⁹⁷ △이기범⁹⁵ △이동현⁹⁵
△이동현⁹⁵ △이상훈¹¹ △이선아⁹⁷
△장윤정⁹³ △장희경⁹⁷ △장희철⁹⁴
△정국환⁷³ △정용준⁷³ △정용진⁹⁸
△조윤지⁹³ △조인우⁹⁶ △조재근⁹⁴
△조재민⁹⁶ △주병기⁸⁹ △최정훈¹¹
△최형근⁶⁹ △허찬미⁹⁷ △홍재욱⁶⁹
◆자연대 △김남성⁸³ △김남우⁹³

△김성환⁹⁰ △김아영⁹³ △김웅규⁹⁶
△김진주¹¹ △김태영¹¹ △김한결¹¹
△김희웅⁸³ △박유나⁹⁶ △박종훈⁷⁴
△신재혁⁹⁷ △오은정⁸² △윤다정¹¹
△윤상은⁹⁷ △이경희⁸⁷ △이동우⁹⁸
△이소영⁹⁸ △이충렬⁹⁰ △이현철⁹³
△임은하⁹³ △전세영⁹⁸ △정 황⁷²
△정광필⁸⁵ △정지혁⁹⁷ △정태현⁹¹
△조동원⁷³ △진가배⁹⁸ △최경원⁹²
△한진우⁷⁷
◆간호대 △김기희⁶⁵ △박현자⁶³
△유순애⁷⁴ △이순임⁷⁵ △임미현⁹³
△정민경⁹⁸ △태영숙⁷¹
◆경영대 △고두형⁹¹ △권용기⁷⁵
△김기훈⁹² △김성환⁹⁷ △김은집⁹³
△문홍장⁷⁴ △박민주⁹⁶ △박희수⁷¹
△선상엽⁹³ △안태진⁹⁶ △양서정⁹¹
△이상수⁷³ △이선화⁹⁴ △이영기⁹¹
△이형일⁸² △조승호⁸¹ △표현덕⁹⁶
◆공대 △강민정¹¹ △강봉돈⁷¹
△강상우⁹³ △고재경⁹⁶ △공병국⁸²
△곽귀성⁹⁷ △곽덕훈⁶⁹ △곽민정⁹¹
△곽우섭⁹⁷ △곽한우⁷³ △구민석⁹⁷
△구자영⁹⁷ △구자호⁹⁰ △구준모¹¹
△구현모⁷² △권영선⁵¹ △권혁준⁵³
△권혁중⁸⁸ △김 영⁵² △김경락⁵⁷
△김규은⁴⁸ △김기훈⁹⁶ △김돈건⁹⁹
△김동규⁵⁸ △김동철⁹⁰ △김병숙⁵²
△김병진⁵⁰ △김석철⁶² △김성권⁹⁷
△김수웅⁶⁰ △김수환⁶⁹ △김신추¹¹
△김신태⁶³ △김용구⁷⁶ △김용덕⁹⁶
△김유희⁵⁷ △김재형⁵¹ △김재환⁵⁴
△김정인⁹⁴ △김종민⁶⁸ △김종철⁷³
△김종훈⁹³ △김주영⁵⁵ △김지웅⁹³
△김 진⁹⁸ △김진욱⁹⁹ △김창일⁵³
△김철홍⁹⁵ △김태경⁸⁹ △김태녕⁸⁶
△김태환⁶⁶ △김학기⁵⁰ △김한규⁷⁴
△김현구⁹⁷ △김현덕⁹¹ △김현수⁸²
△김혜령⁹² △김홍태⁹⁷ △노관우⁹⁷
△류재룡⁹⁷ △류중희⁵³ △문혜진¹¹
△박대철⁷² △박명규⁶³ △박민규¹¹
△박병창⁶⁸ △박봉엽⁷¹ △박세영⁹⁵
△박승근⁶³ △박영규⁵⁸ △박용성⁹³
△박재민⁹⁶ △박재복⁵⁸ △박재서⁶⁵
△박종철⁹⁶ △박지형⁹³ △박진모⁹⁷
△박찬용⁹⁶ △박희규⁵⁴ △배성준⁹⁹
△백봉근⁵⁰ △서세현⁶⁵ △서장원⁹⁸
△성정환⁹³ △손무익⁶⁸ △송기선⁹³
△송대중⁵³ △송재규⁵⁵ △송종은⁹⁵
△송준환⁶² △송화정¹¹ △신상재¹¹
△신소영⁹³ △신승천⁹⁷ △심수병⁶⁹
△심재복⁹⁸ △안상규⁸⁵ △안정기⁹³
△안학수⁵⁰ △오동익⁸⁹ △오일영⁸⁹
△오종관⁹⁵ △우세훈⁷⁵ △유병욱⁸¹
△유슬기¹¹ △유태경⁷⁹ △윤익근⁹⁷
△윤정목⁶³ △윤창기⁹⁵ △이강록⁹⁸
△이규생⁵⁷ △이근수⁵⁴ △이기화⁵³
△이민규⁹³ △이병주⁹⁶ △이병철⁸⁰
△이상욱⁹⁵ △이상윤⁹³ △이성준⁸³
△이수영⁹³ △이승률⁵⁵ △이영우⁵⁸
△이영준⁹⁷ △이요한⁹⁷ △이용욱⁹¹
△이원복⁵⁰ △이웅직⁵¹ △이일환⁵⁵
△이정국⁶² △이정균⁷⁷ △이제근⁵⁶
△이종규⁵⁷ △이종삼⁶⁷ △이종수⁸²
△이진열

△이소라63 △이승섭77 △이승환55
△이종문56 △이준범97 △이지은96
△이지은03 △이한구57 △이현수92
△이흥락83 △임인규77 △임현수07
△장순욱84 △장지석66 △장홍선84
△전제균06 △정광욱06 △정극수55
△정기돈78 △정세욱56 △정재형58
△조병직46 △조석래51 △조주운56
△진혜인03 △최건호11 △최경자01
△최광률54 △최기선64 △최용구00
△최정훈07 △한상근02 △한영광63
△한주상63 △홍일표63 △홍준현64
△황중우86 △황지운03

◆시대 △강장완54 △고경순61
△고두현72 △김윤상99 △김관섭79
△김리경03 △김병수59 △김소연85
△김승배80 △김연성01 △김영준73
△김영찬55 △김용길54 △김원배82
△김정웅65 △김종욱39 △김중우54
△김주경55 △김항원65 △김현호03
△김혜우64 △남궁이41 △노지영82
△목영부54 △박병윤65 △박영목56
△박종대51 △박전배74 △박희동75
△방영선75 △변희준58 △서덕현69
△선기은03 △신찬우48 △심상석58
△심숙주74 △안규철58 △오경자52
△오유정03 △유규상05 △유병석80
△유오진58 △유택상03 △윤석원68
△윤종훈06 △이달덕70 △이만형62
△이상철59 △이순녀82 △이시정54
△이시훈57 △이용덕71 △이윤하63

△이재만52 △이제용60 △이주호07
△이현복58 △이현지03 △이희진11
△장대운54 △장완배61 △전경옥58
△전기채51 △정광훈00 △정보미06
△정복섭65 △정신화71 △정혜린10
△조익선40 △지동소55 △최귀남66
△최두영78 △최아라99 △최영림76
△최천학자52 △황남택64

◆상대 △강문수67 △강원규54
△강화중68 △고학도56 △권기봉54
△권만식65 △김윤일66 △김정삼59
△김중서58 △민병태58 △박동순57
△박인석48 △박지중66 △변원욱49
△서병태63 △송인구59 △송정위60
△신동현56 △신용태59 △양재국50
△양재욱53 △양해성68 △오맹선53
△위봉택62 △유장희59 △이기철55
△이기홍50 △이상호57 △이성열69
△이성재53 △이영화67 △이재환62
△이종윤64 △이태종50 △임창무53
△임한석59 △장기남61 △정덕화56
△정택순53 △정해운46 △조근목55
△조성일62 △채수환56 △최성환56
△최준철59 △한영국50 △허도환64
△홍동진48

◆생활대 △권정현03 △김남미73
△김세리03 △김예지03 △박문학60
△이은숙83 △차가영03 △최재영07

◆수의대 △강 은11 △고주영65
△김경휘56 △김정근50 △김지나03
△김진영60 △김태훈03 △김협수81

△남궁진03 △노병의61 △노상석65
△박노국64 △박유순63 △서상호91
△송기홍61 △신문균56 △원문상60
△유승창63 △이강석74 △이금주83
△이시현03 △이원철74 △이중희49
△정승기53 △정정현59 △조기형49

◆약대 △강기훈64 △권창호47
△김길수50 △김병주11 △김진형88
△김태룡11 △남기혁52 △류한호60
△문병철11 △박태선04 △배옥남95
△배종철69 △서동화69 △송순자60
△송희성60 △윤광수69 △이상호66
△이훈자56 △정근배61 △조미정87
△조철원57 △최기철53 △홍순태67
△황봉자61

◆음대 △김나정94 △문영애65
△박정배53 △서운진94 △신윤식69
△안형일53 △유정민87 △윤라영08
△이문경76 △이민나00 △이윤영03
△이한돈65 △이현진03 △조혜정08
△최영택74 △하내인58 △한태원73
△현병화48 △현지윤03 △홍수민03
△홍순미71

◆의대 △고재균50 △김 윤62
△김내준49 △김성환03 △김종환50
△박성근89 △박지영82 △박홍용80
△신상만61 △신용찬54 △신준근87
△안종현03 △유명철61 △유형록57
△이동규77 △이동명73 △이동욱03
△이준석96 △이태훈11 △임경환01
△전영훈74 △정준형03 △조민현03

△주진순43

◆자유전공 △나현주03 △문기현03
△이경민03

◆치대 △고진수58 △김강주79
△김민석56 △김상근83 △김성하04
△김영수57 △김용철63 △김평일72
△문창남58 △민선경85 △박경정69
△박동욱67 △박상규03 △박용세60
△박용학58 △상기중51 △서운석72
△손대식65 △안병관52 △이경우71
△이장훈57 △이재호80 △임광수60
△정영환72 △정인환60 △정평구58
△최규원77 △함병도75 △홍성룡64

◆대학원 △김현탁82 △모수미75
△박병호89 △허도학83 △황종로80

◆경대원 △박준석66 △송준덕88
△유민철71

◆교대원 △이상길70

◆국대원 △고영진08 △정사랑03

◆법대원 △김규현03 △이재성10
△이재욱10

◆보대원 △김선희10 △신학근60
△이용성73

◆신대원 △이민희73

◆용대원 △최명지11

◆의대원 △송진화03

◆행대원 △강남구03 △그 렉10
△김광림80 △김선태90 △서일수67
△원희영69 △이원기67 △이준원87
△장윤정10 △홍현선77

◆환대원 △박종준03 △송슬기10
△이동관03 △이태리11 △전상훈83
△전은선10

◆AMP △고윤재20 △김경덕18
△김관수61 △김수길27 △김연수66
△박성규15 △박영대1 △서재희25
△서준영20 △서철봉33 △손재환48
△신명철8 △안윤수74 △오연수4
△우정욱37 △유철조12 △윤태하34
△이성연4 △이순세22 △이영주5
△이재환48 △이종학13 △이찬복67
△정용근45 △정의순4

◆AIP △고형석21 △김극배48
△김승길10 △김창진48 △박영목38
△박정오16 △이동명42 △장희천20
△전인근48 △조경석48 △최득호48
△최용길22 △최익선25 △황기인10

◆ACAD △김달술2 △김부근31
△김한욱52 △김호연11 △박명서27
△박시영74 △박용암43 △서영주75
△안효원45 △장해익34

◆ABP △박성관26 △박형규20
△배덕재41 △서재선40 △윤해진29
△이재호40 △이현구39 △황세영37

◆SGS △권오신5 △김관욱18
△김두철3 △김명수2 △김희덕29
△송기태29 △안영대22 △유철중28
△윤진환24 △최호운18

◆APC △서동훈15 △안 기15
△오철우17 △이용운13 △하정호8
△황수경8

◆HPM △강택재29 △권도연29
△김명숙29 △김용락29 △김재선29
△김형운29 △류희근4 △박상채29
△박원빈29 △박종업29 △박희두7
△석성희28 △염금량14 △유근일29
△윤지영29 △이구봉29 △이선화29
△이승열29 △이승표29 △임경민29
△장동환29 △정 옥29 △조동순27
△조이만29 △최낙원16 △최진호19
△하우형29 △한상환29 △현대우1

◆AMPP △고영수10 △김기웅12
△김종배12 △박경조12 △손명호12
△이성현12 △한재순7

◆AIC △강철호34 △왕진원11
△전 진5 △조현호32 △최인환34

◆AFB △김병관12 △최수현12

◆AMPFRI △김심형29 △박길재28
△박원술29 △이경삼11 △이우규26
△전문한29

◆ACMP △구지윤4 △박세원9
△성경환9 △오병삼5 △이경범9
△이종명9

◆FIP △김종용9 △신인식9

◆GLP △강한석26 △김태진18
△마명욱23 △손동호24 △이종욱26
△이효승26 △임채룡26 △정동훈20
△차기민16 △최도승24 △최성덕21

◆ALP △곽상욱12 △권영찬4
△길기봉2 △김민석16 △손창환17
△이준호17 △이학범14 △장석산9
△장재영1 △정기환6 △정영조8
△주정환13

◆SPARC △김영석5 △정무신5

◆AFP △김성주11 △민복기11
△이원호11 △최외홍11

◆ASP △김상근24 △배동기20
△신종환24 △양선장16 △이명영24
△임영빈21 △장주인23

◆IFP △구본훈8 △이승득1

◆BCP △김원부8 △남 인11
△신철수9 △최성원2

◆ABKI △김길현3 △도종성3
△박건용3 △임문숙3 △최희남1
△최희환3 △현상섭2

◆KFL △강미화16 △강윤수8
△강정욱11 △김건환11 △김설경10
△김영숙13 △김유경15 △김정숙10
△김종철12 △김텃골11 △동소현3
△마수정15 △민정선16 △박려화14
△박영숙11 △박인아12 △배은교15
△백미혜11 △백유진14 △신유정9
△유재기16 △유현정10 △윤형숙13
△이민희16 △이명숙10 △이미애11
△이병호16 △이소영11 △이수현15
△이영선15 △이은영15 △이은자16
△이은주11 △이인환15 △이현아5
△이현주9 △임효진16 △장희연14
△전승자15 △정성호15 △조경현9
△조윤희11 △차성만12 △최규희16
△최금섭12 △최말순13 △최안나4
△최윤정4 △최주섭15 △최주연16
△홍은영15 △황수영16

분 담 금

◆미주동창회 12, 116, 751 원

2013년 7월

연 회 비	38,480,000
평생회비	22,700,000
입 회 비	130,000
분 담 금	12,116,751
계	74,596,751
2013년 누계	759,988,751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민행복기금이 열어가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안내

채무조정 대상
2013. 2. 28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무금액 1억 이하인 신용대출

채무조정 접수기간
2013. 4. 22부터 2013. 10. 31까지 (6개월 한시접수)

채무조정 접수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 지역본부 · 지방사무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KB국민은행 전국지점, NH농협은행 전국지점

신청 · 접수 문의
서민금융나들목 www.hopenet.or.kr
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 KB국민은행 | NH농협



당신이 바라던 G LG G2



FULL HD 디스플레이

1,300만 화소 OIS 카메라



퀄컴 스냅드래곤 800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도대체 비결이 뭐야?

가만히 있어도 삼성의 채용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고
트윗글리쉬로 매일매일 엿지있는 영어회화를 배우며
열정樂서, 삼성직업멘토링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그 선배의 잘 나가는 비결,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S4!**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S4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트위터
www.twitter.com/samsung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m.kakao.com/s/748